

2020 한국 富者 보고서

Korea Wealth Report 2020

KB 금융지주 | 경영연구소



Contents

| | |
|--|---------------|
| 특집. 한국 부자 연구 10년, 부자의 변화를 보다 | 07 |
| 01 지난 10년의 금융환경 변화 | 08 |
| 02 한국 부자 수와 자산 변화 | 18 |
| 03 한국 부자의 금융 활동 변화 | 22 |
| I. 한국 부자 현황 | 31 |
| 01 한국의 부자수와 금융자산 규모 | 32 |
| 02 한국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 37 |
| 03 부자의 기준 | 42 |
| II. 부자의 투자 행태 | 45 |
| 01 부자의 투자 성향 | 46 |
| 02 부자의 투자 행동 | 48 |
| 03 부자의 향후 투자 전략 | 52 |
| III. 부(富)의 생애 | 57 |
| 01 부(富)의 원천 | 58 |
| 02 부(富)의 성장 동력 | 60 |
| 03 부(富)의 이전 | 64 |
| IV. <이슈> 코로나19에 따른 한국 부자의 소득과 자산 변화 | 69 |
| 01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영향 | 70 |
| 02 코로나19에 따른 자산 영향 | 7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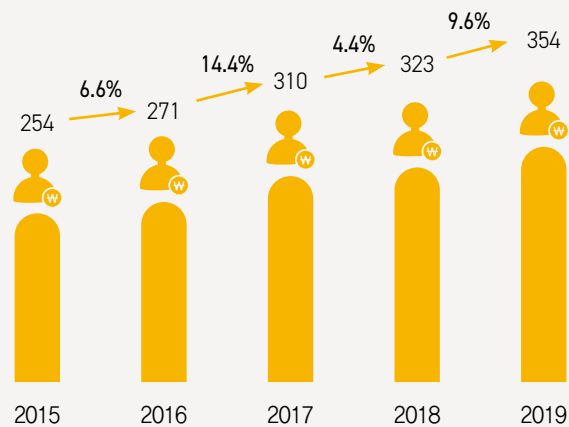
2020 한국 富者 보고서

Snapshot

한국 부자 수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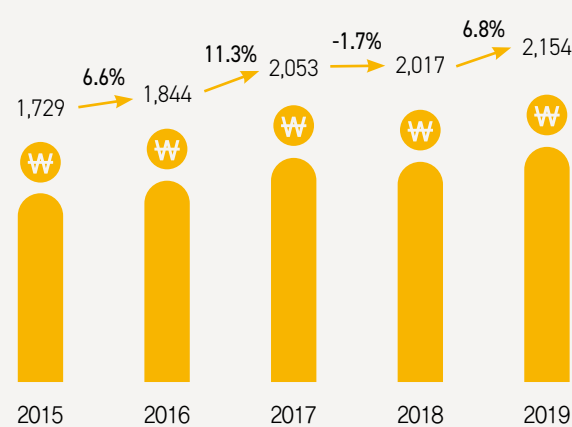
한국의 부자는 2019년말
35만 4천명으로전년대비 9.6% 증가



한국 부자의 자산 규모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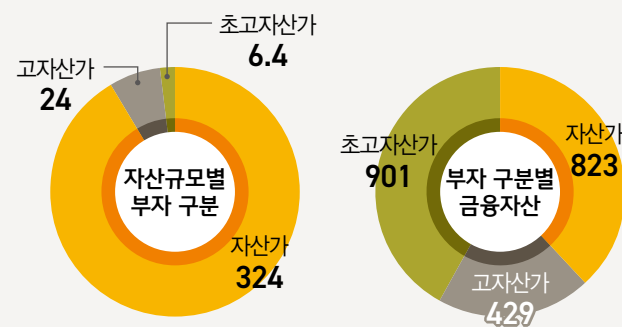
한국의 부자의 자산은 2019년말
2,154조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



자산 규모별 부자 구분

단위 : 천명, 조원

초고자산가는 6,400명,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901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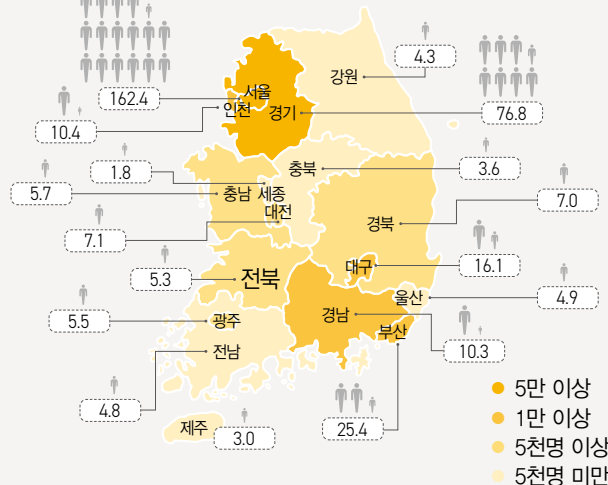


자산가: 금융자산 10억 이상 100억원 미만 개인
고자산가: 금융자산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개인
초고자산가: 금융자산 300억원 이상 개인

지역별 한국 부자 수

단위 : 천명

한국 부자는 서울 46%, 경기 22%,
인천 3%로 수도권에 70.4%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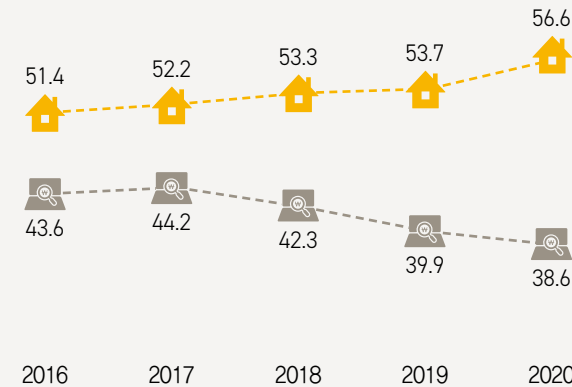


총자산 구성비

단위 : %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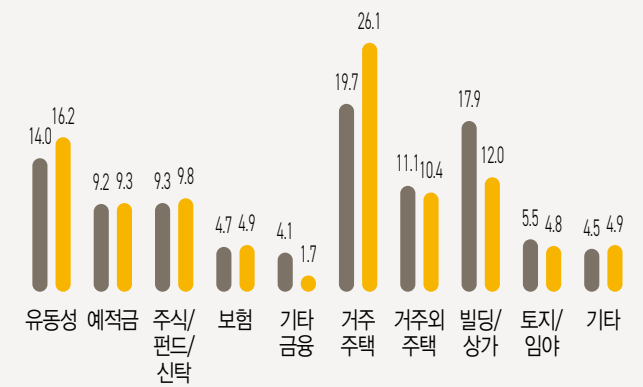
최근 5년간 금융자산 비중 지속 감소,
부동산자산 비중 지속 상승



총자산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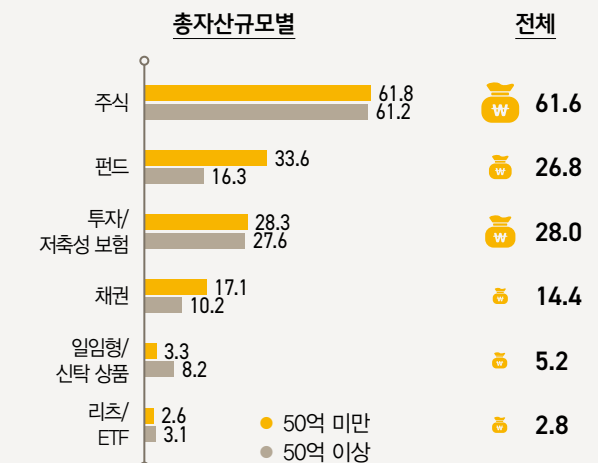
단위 : %

2019년 대비 빌딩/상가 비중 하락,
거주주택 비중 증가



장기적 유망 금융 투자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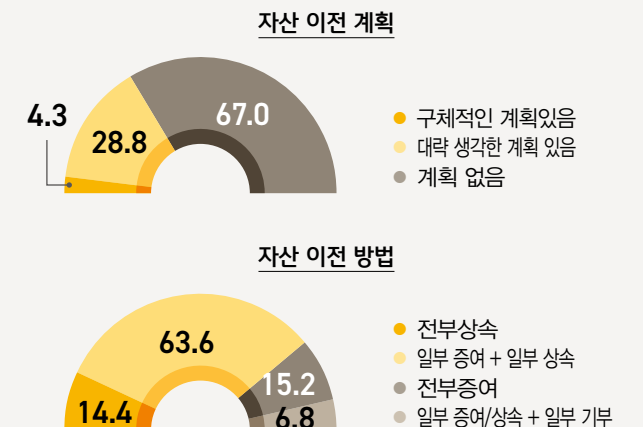


부자가 생각하는
장기 유망 금융투자처는 **주식**

자산 이전 계획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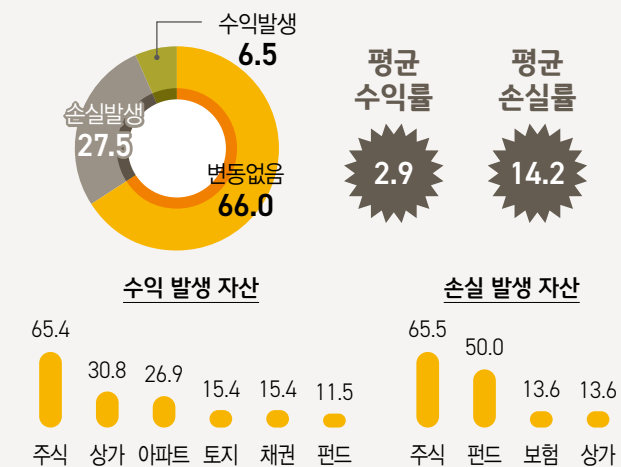
부자중 33%가 자산 이전을 계획
증여와 상속 병행을 선호



코로나19로 인한 자산가치 변화

단위 : %

코로나19로 27.5%가 자산가치 하락 경험
수익과 손실 모두 **주식**에서 많이 발생



코로나19로 인한 포트폴리오 점검

단위 : %



- ‘한국 富者 보고서’는 2011년부터 매년 금융자산(현금 및 예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예치된 자산의 합) 10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을 ‘한국 부자’로 정의하며, 한국 부자의 현황과 자산운용 행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20 한국 富者 보고서’ PART 1의 제1장 「한국 부자 현황」은 자금순환표(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통계청), 금융소득 종합과세 통계(국세청), KB금융 고객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KB경영연구소의 추정모형을 통해 추정된 부자 현황입니다.
- ‘2020 한국 富者 보고서’ PART 1의 제2장 이후로는 전국의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국 부자의 라이프스타일 및 자산운용행태, 금융인식 및 니즈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보고서 세부 내용은 KB금융그룹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PART

특집

한국 부자 연구 10년, 부자의 변화를 보다

01 | 지난 10년의 금융환경 변화

02 | 한국 부자 수와 자산 변화

03 | 한국 부자의 금융 활동 변화

2011년 첫 ‘한국부자보고서’ 발간 이후 10번째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10년이란 기간은 강산이 한번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천지가 개벽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디지털 기술의 엄청난 발전과 맞물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에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변화를 직접 목도하고 있는 중이다. 10년 동안 우리의 삶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을 과학 기술과 사회·문화적 변화 그리고 경제적 변동 상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부자의 자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았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도 세계 및 한국의 부자 수와 자산규모는 꾸준히 증가했고, 자산의 포트폴리오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에 걸쳐 ‘상속·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이 증가하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10년의 변화 속 가장 눈에 띄는 트렌드는 ‘스마트폰 열풍’일 것이다. 2010년부터 스마트폰 가입자가 급증하고 스마트폰 관련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었다. 스마트폰 활성화는 산업 전반에 걸쳐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서비스 개발과 마케팅 경쟁을 고조시켜 주식 거래 등 금융 거래에서도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증가시켜 주식시장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부자들도 금융사 직원과의 대면을 통한 금융거래보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비대면 거래를 점차 선호한다고 응답이 늘어났다.

10년 동안의 한국 부자 수와 자산의 변화와 금융 행동의 변화를 살펴보면, 코로나 19로 재편되고 있는 기존 세계의 질서와 규칙 속에서도 변함없는 부의 흐름을 읽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본다.

01 지난 10년의 금융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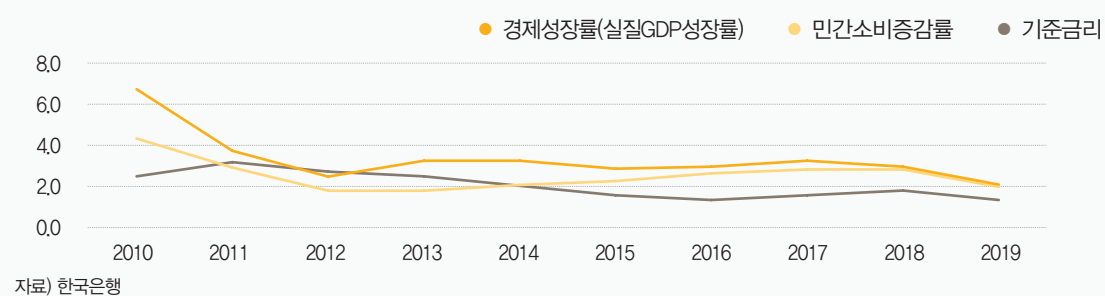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저성장·저물가·저금리의 뉴노멀 현상 심화 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저성장·저물가·저금리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 역시 2012년을 기점으로 경제성장률이 이전 대비 한 단계 하락한 뉴노멀 시대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2014~2015년에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려 하였으나, 2015년 중국발 불황으로 인한 글로벌 불황과 제조업 구조조정이 겹치며 성장세가 꺾였고,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향후 경제성장률 전망도 불확실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이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2011년 이후에는 기준금리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부터 15세~64세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2031년부터는 총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OECD 자료(2017년)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43.8%가 중위소득계층의 절반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상대적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은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일할 수 있는 젊은이가 줄고 부양해야 할 노년층이 늘어나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인구오너스 시대에 돌입한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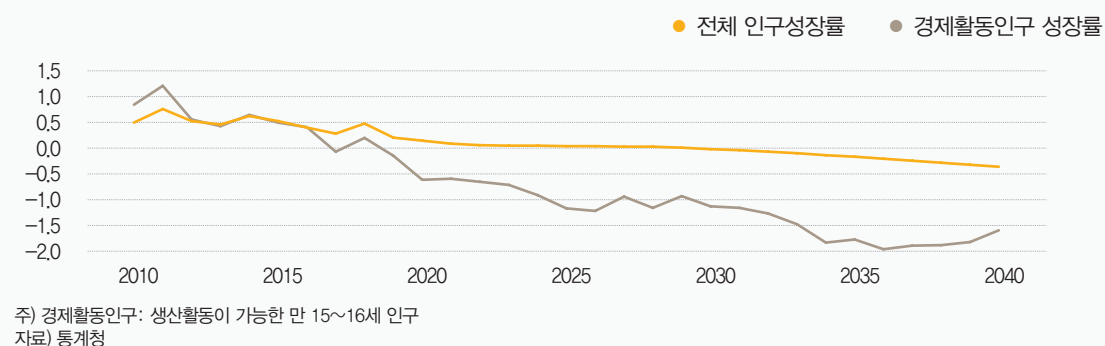
저성장, 저금리 시대

(단위: %)



인구 증가율 전망

(단위: %)



지난 10년간 한국 주식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였으나 장기 박스권 추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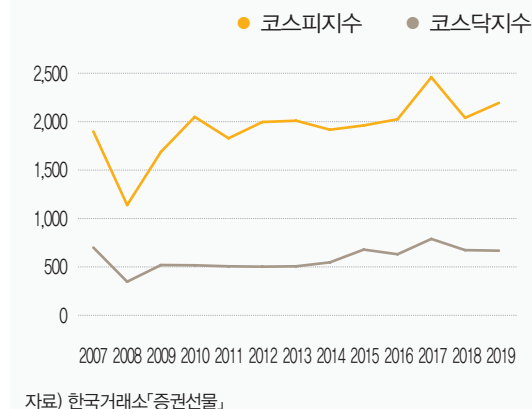
2010년 한국 주식시장은 유럽지역의 재정위기, 중국 긴축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회복하는 등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전세계 경제의 혼돈과 자산시장의 폭락을 극복한 모습을 보였다. 같은 시기에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은 저성장의 뉴노멀 시대에 높은 경제 성장률을 내세워 뉴파워로 등장하였다.

이후 완만히 성장하던 한국 주식시장은 2017년 IT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이 최대 호황을 맞으며 일시적으로 코스피 2,500시대를 열었는데, 같은 시기 세계 증시 시가총액 규모도 2016년 대비 22%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8년 선진국 통화 긴축과 미·중 무역 전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탈리아 재정 불안, 불안한 국제유가,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등 끊임없이 악재가 쏟아지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30%가 증발하였다. 이는 한국 경제 규모의 7배가 넘는 규모로, 91개 주요국 주가지수 가운데 80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2019년에는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일부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세계 주요 증시의 시가총액이 다시 회복되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2020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려면 2021년이 지나야 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에도 주요국 주식시장은 주식투자 외에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개인투자자의 가세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한국의 '동학개미', 중국의 '청년부추', 일본의 '닌자개미', 미국 온라인 증권사 '로빈후드'에 몰리는 '로빈후더'들이 공격적 투자를 하며 주식시장의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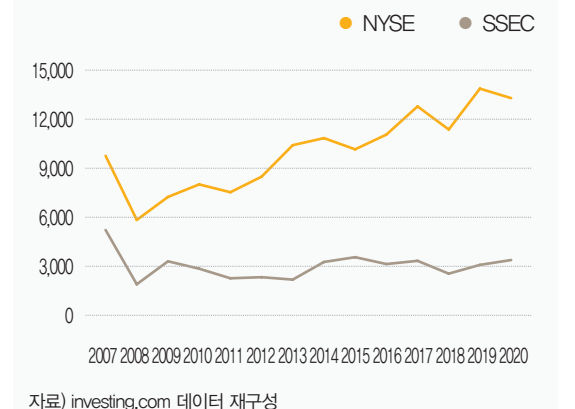
한국 주가지수

(단위: point)



미국·중국 주가지수

(단위: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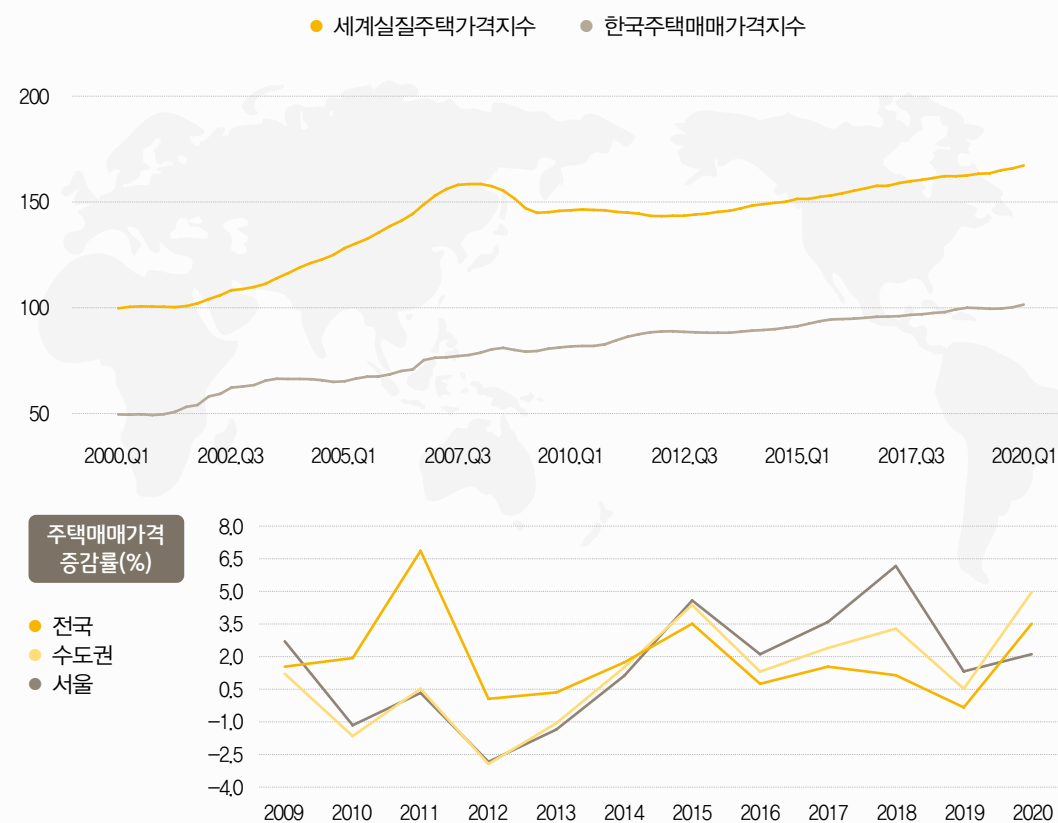


최근 10년 꾸준히 상승 중인 글로벌 주택시장에 비해, 한국의 주택시장은 좀더 완만한 성장세

IMF의 세계 실질주택가격 지수를 보면 세계 주택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대 초반인 2012년 3분기 144까지 하락하였다가 이후 차츰 살아나 2017년 2분기에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뒤 꾸준히 상승하여 2019년 3분기에는 167로 2000년 이후 최고를 경신했다.

한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2020년 65개국 중 3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 10년의 장기 추이로 보면 실질 주택가격은 OECD 평균에 비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주택매매가격 지수 추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1년에는 2010년 대비 주택매매가격의 상승폭은 확대되었으나,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과 예상보다 부진한 국내 경제 성장률 등으로 인해 상승세는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2018년 7월 이후 서울 등 주요 지역에 국지적 과열이 나타났고, 2019년에는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하락하였으나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상승률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었다.

세계 실질 주택가격 지수와 한국 주택가격 지수 추이



주) IMF의 세계 실질주택가격 지수: IMF가 분기별로 산출하는 2000년 2분기를 기준(100)으로 물가 상승을 반영한 세계 63개국의 집값을 단순 평균한 지수
자료) IMF 자료 재구성, KB국민은행 「월간 KB주택가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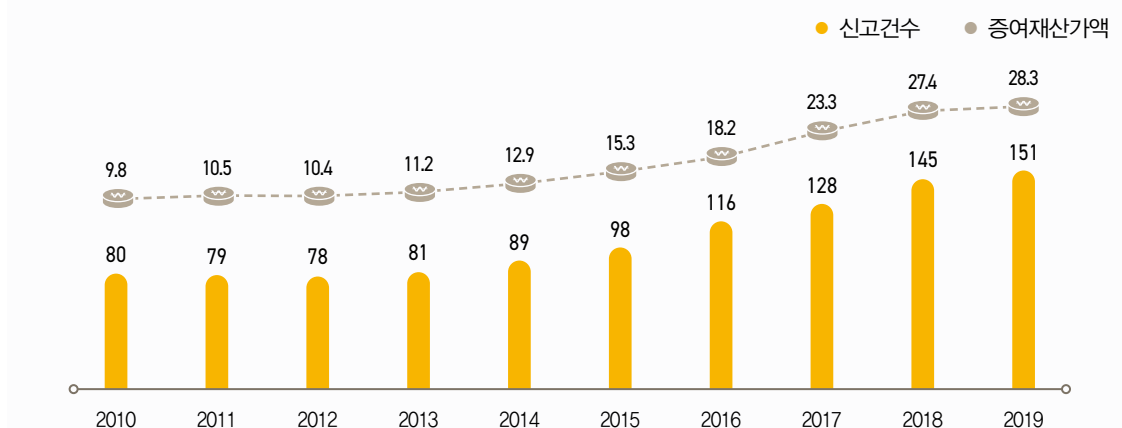
지난 10년간 한국 부자는 자산의 증가와 함께 상속·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 증가

세계적으로 부의 성장과 함께 보유한 부를 나눠주는 이전의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화 심화나 자산가치의 변동 등의 화두는 부의 이전에 대한 부자들의 관심을 더 증폭시켰고, 이러한 전세계적인 현상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과거 10년간의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 추이를 보면, 2010년 상속·증여는 신고액 기준으로 18조원 규모에서 2019년 50조원 규모로 약 2.7배 늘었다. 상속재산도 증여재산과 증가추이를 같이 하였다. 상속인 수도 2010년 4,083명에서 2019년 9,555명으로 2.3배 증가하였다.

한국의 증여재산가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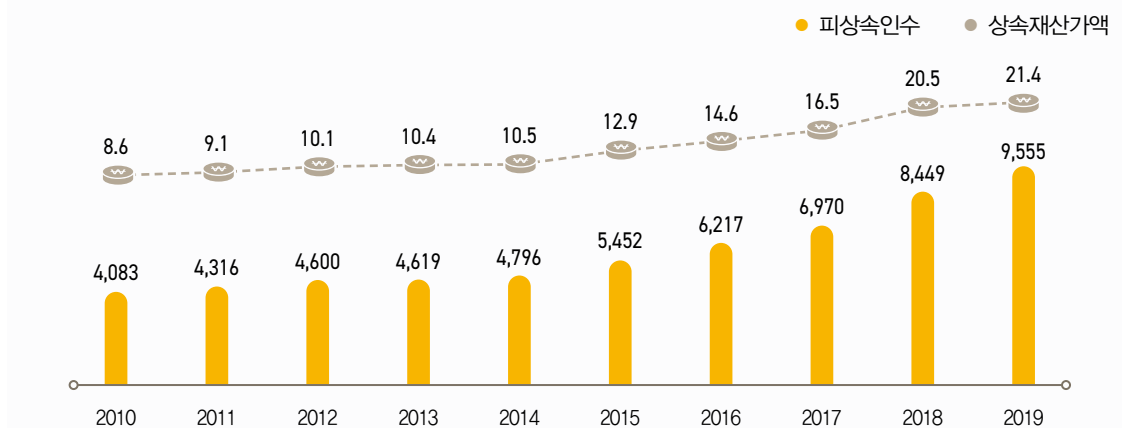
(단위: 천건, 조원)



자료) 국세통계

한국의 상속재산가액 추이

(단위: 명,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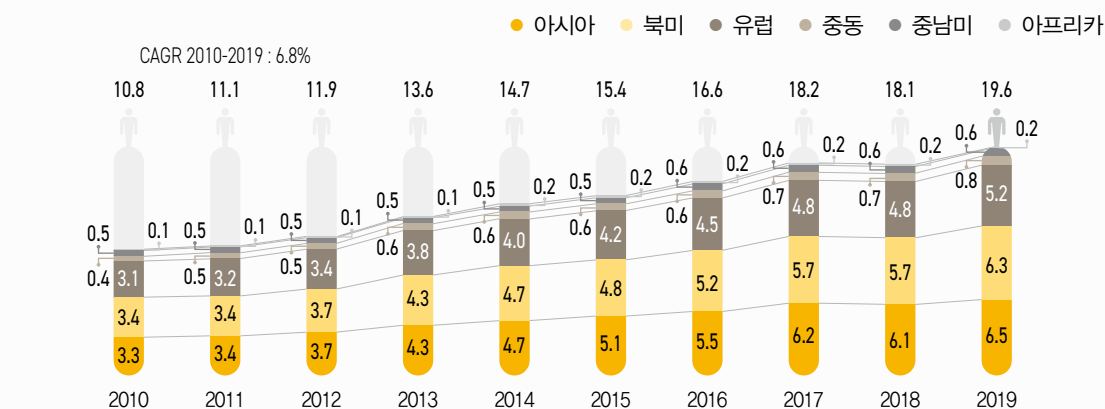
자료) 국세통계

2010년부터 10년간 세계 고자산가의 수는 1.8배, 보유 총자산은 1.7배 증가

2010년 1,080만명이던 세계 고자산가(HNWI)의 수는 연평균(CAGR) 6.8%씩 성장하면서 10년 후인 2019년에는 1,960만명으로 1.8배 증가하였다. 이들이 보유한 총자산 규모도 연평균 6.3%씩 늘면서 2010년 42조 8천억 달러에서 2019년 74조 달러로 1.7배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무역전쟁과 브렉시트 등의 불안 요소로 전 세계적 주가 하락이 발생하면서 총자산 규모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9년 주식시장이 반등하면서 세계 고자산가 인구와 총자산은 2018년 대비 8% 이상 증가하였다.

세계 고자산가(HNWI) 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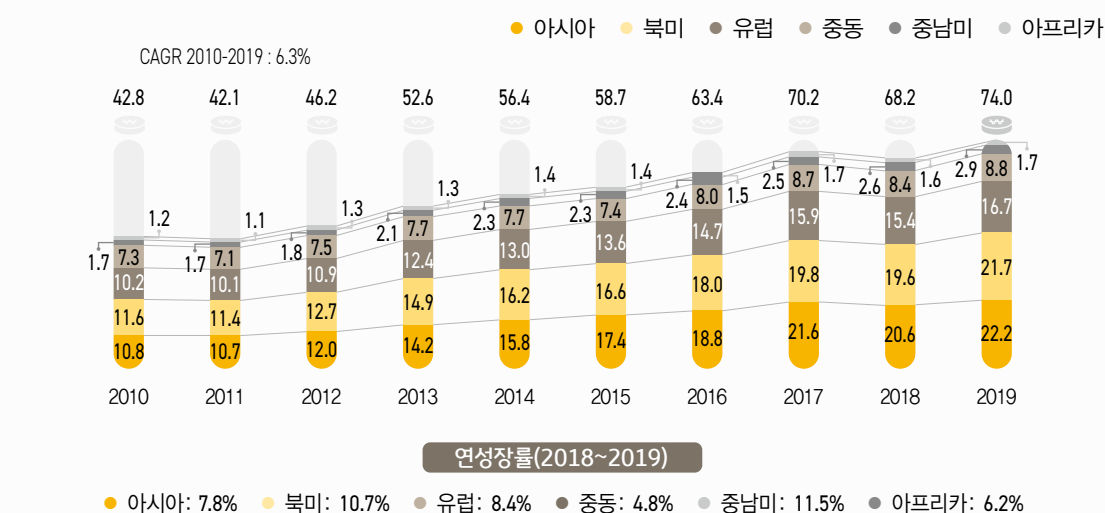
(단위: 백만명)



주) HNWI(High Net Worth Individuals): 1차 거주목적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이 100만달러 이상인 개인 고객
자료) Capgemini 자료 재구성

세계 고자산가(HNWI)의 총금융자산규모

(단위: 조, 달러)



연성장률(2018~2019)

아시아: 7.8% 북미: 10.7% 유럽: 8.4% 중동: 4.8% 중남미: 11.5% 아프리카: 6.2%

자료) Capgemini 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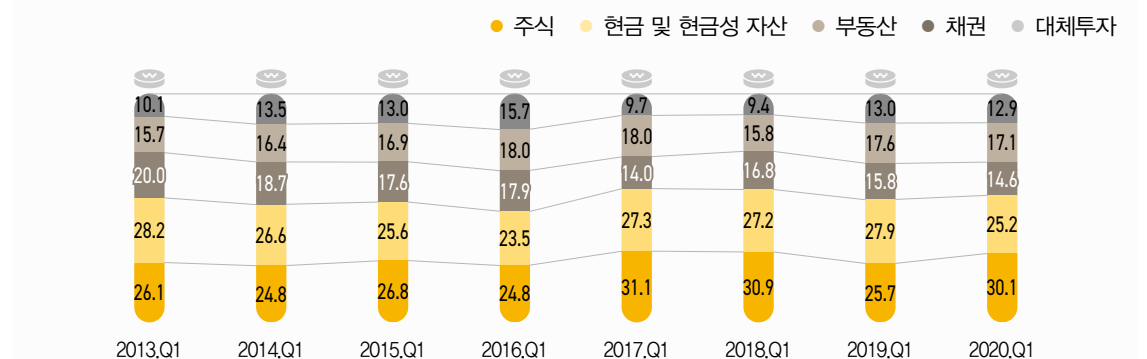
세계 고자산가 자산 중 최대 비중은 2013년 '현금/현금성 자산'에서 2020년 '주식'으로 변화

2013년 세계 고자산가(HNWI)의 자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28.2%였으나, 2020년 25.2%로 감소하였다. 2017년 대비 2018년 총자산 규모가 3% 정도 하락하자 고자산가들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늘렸고, 그 결과 2019년 1분기에 총자산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최대 비중이 되었다. 반면 '주식'은 2013년에서 2020년까지 CAGR 2.1%로 성장하여, 2020년 1분기에는 가장 비중이 높은 자산(30.1%)으로 나타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순위가 되었다.

지역별로는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일본 제외)에서는 2013년도 기준으로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19년에는 '부동산' 비중이 감소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달리 일본은 2013년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총자산의 49%를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주식에 할당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고자산가(HNWI)의 총자산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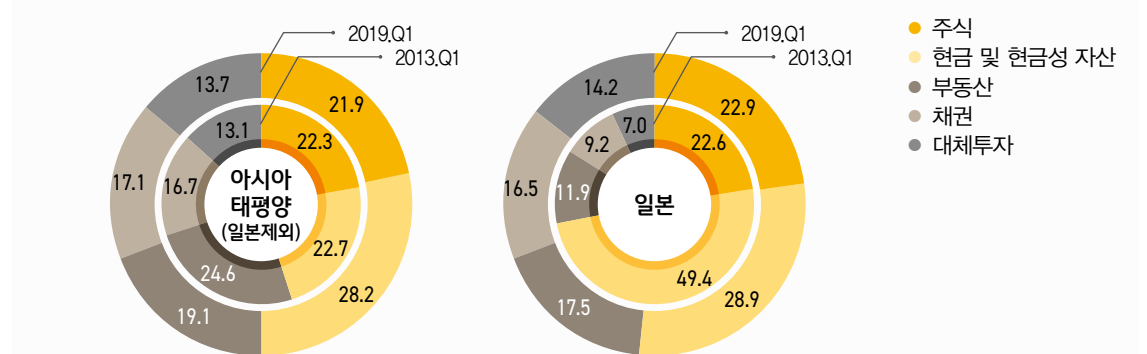
(단위: %)



주1) 대체투자: 구조화 상품, 헤지 펀드, 파생 상품, 외환, 사모펀드 포함
주2) 부동산: 1차 거주목적 부동산 제외
자료) Capgemini 자료 재구성

아시아 태평양 지역 HNWI 총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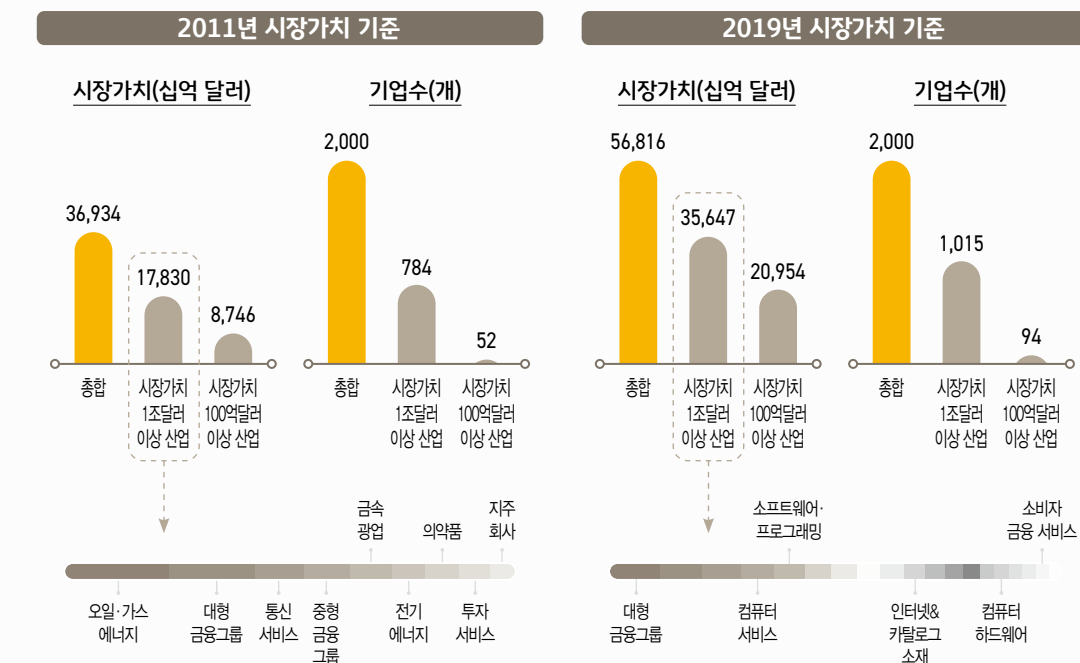
자료) Capgemini 자료 재구성

세계 부(富)의 성장을 주도한 산업은 IT 산업과 금융산업

2011년 포브스 글로벌 2000 기업의 시장가치(Market Value)는 총 36조 9,340억 달러 규모였으나 2019년 포브스 글로벌 2000 기업의 시장가치는 총 56조 8,160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였다. 100억 달러 이상의 시장가치를 가진 기업이 2011년에는 52개였으나 2019년에는 94개로 늘어났고, 이 기업들의 총 시장가치는 20조 9,540억 달러로 총 시장가치의 37%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총 시장가치가 1조 달러 이상인 산업 분야는 2011년 9개 업종, 784개 기업에서 2019년 19개 업종, 1,015개의 기업으로 증가하였다.

2019년 글로벌 2000 기업의 산업 업종을 보면, 은행이 308개 기업으로 가장 많고, 증권사 등 기타 금융 기업이 145개, 건설이 123개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11년에 비해 2019년 큰 변화 중의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IT 분야'와 '소비자 금융산업'의 기업가치 상승이라 하겠다.

포브스 글로벌 2000 산업별 현황 변화 (2011 vs.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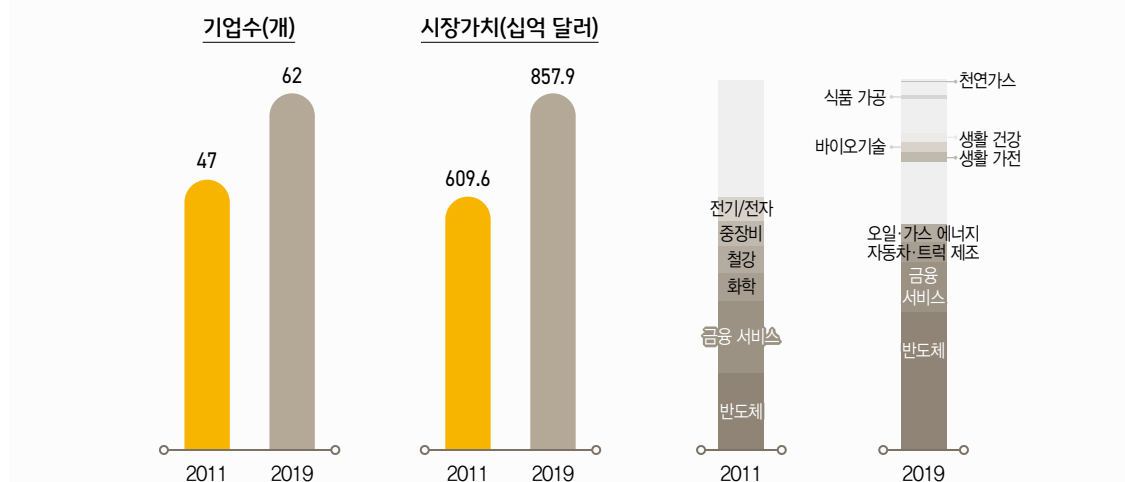
주) 포브스 글로벌 2000(Forbes Global 2000): 포브스 매거진이 선정한 세계 2,000개 상장 기업의 연간 순위로, 순위는 판매, 이익, 자산, 시장 가치의 네 가지 메트릭의 혼합을 기반으로 선정
자료) 2011년, 2019년 포브스 글로벌 2000 재구성

한국 부(富)의 성장은 IT·바이오 분야 사업 운영이 원천으로 작용

포브스 글로벌 2000에 선정된 한국 기업은 2011년 총 47개에서 2019년에는 62개로 31.9% 증가하였다. 한국 시장가치는 2011년 6천 96억 달러에서 2019년 8천 579억 달러로 약 10년간 40.7% 증가하였다. 시장가치가 가장 크게 상승한 산업 분야는 '반도체'로 2011년 대비 150% 이상 상승하였고, '생활 가전'과 '바이오기술'이 2019년도에 새롭게 포함되었다.

과거 10년전과 비교하면 한국 기업에서 'IT·바이오기술' 기업의 약진이 눈에 띄는데, 2010년에는 대기업 오너 일가 위주였던 '한국 50대 부자' 순위에서도 IT·바이오 관련 사업 운영을 원천으로 한 슈퍼리치가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2000 한국 기업 가치



자료) 포브스 글로벌 2000 재구성

한국 50대 부자 순위 변화

(단위: 조원)

| 2010년 | | | | 2020년 | | | |
|-------|-----|-----|-------|-------|-----|------|-------------|
| 순위 | 이름 | 자산 | 원천 | 순위 | 이름 | 자산 | 원천 |
| 1 | 이건희 | 7.3 | 삼성 전자 | 1 | 이건희 | 17.3 | 삼성, 삼성전자 |
| 2 | 정몽구 | 3.8 | 현대자동차 | 2 | 서정진 | 11.4 | 바이오기술, 셀트리온 |
| 3 | 이재용 | 1.9 | 삼성 전자 | 3 | 김정주 | 9.6 | 온라인 게임, 넥슨 |
| 4 | 정몽준 | 1.6 | 조선 | 4 | 이재용 | 6.7 | 삼성전자 |
| 5 | 신창재 | 1.6 | 교보생명 | 5 | 김범수 | 5.2 | 카카오 |
| 6 | 신동빈 | 1.5 | 롯데 | 6 | 권혁빈 | 4.0 | 스마일게이트 지주 |
| 7 | 이명희 | 1.5 | 신세계 | 7 | 최태원 | 3.3 | SK 지주 |
| 8 | 정의선 | 1.4 | 현대자동차 | 8 | 정몽구 | 3.2 | 현대 자동차 |
| 9 | 신동주 | 1.4 | 롯데 쇼핑 | 9 | 서경배 | 3.0 | 화장품, 아모레 |
| 10 | 최태원 | 1.2 | SK 지주 | 10 | 김택진 | 2.5 | 엔씨소프트 |

자료) 포브스 한국 부자 순위 50 중 일부

2010년대를 아우르는 사회문화적 트렌드 키워드는 #스마트폰, #공유경제, #인공지능, #K컬처

지난 10년간의 사회·문화적 트렌드를 키워드로 살펴보면, ‘스마트폰’을 제외하고는 설명이 어려울 정도이다. 불과 10년 사이에 휴대폰이 컴퓨터의 모든 역할을 대신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스마트폰의 발전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한 분야는 바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으로 기존 공중파의 영역을 뛰어넘는 미디어로 성장하였다. 2010년대 들어 IT기술의 발전으로 개인 간 거래(P2P)가 편리해지고 모바일 기반 서비스가 활발해짐에 따라, 집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 자전거를 공유하는 ‘따릉이’ 등 다양한 자원을 공유하는 공유경제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16년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경기를 통해 널리 알려진 “인공지능 기술”은 강력한 혁신과 성장의 발판이 되었고, 현재는 의료, 보안, 자동차, 금융, 교통,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한 분야는 K팝이 이끈 K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었다. 중국,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중동, 유럽, 남미까지 뻗어 나가며 음악, 뷰티, 드라마, 영화, 푸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10년의 사회·문화적 트렌드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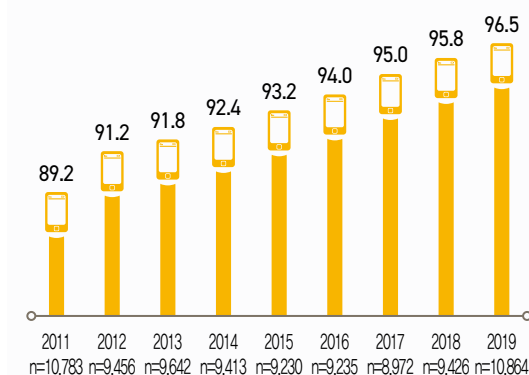
자료) 언론 등 재구성

지난 10년간 모바일 세상으로 변신시킨 주역은 97%에 이르는 스마트폰과 개인 휴대폰 보유 확대

스마트폰은 이 세상을 모바일 세상으로 변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11년에는 4G LTE가 도입되어 웹 페이지 로딩, 동영상 재생, 팟캐스트 다운로드 속도가 3G에 비해 놀랍도록 빨라졌다. 빠른 4G 경험으로 인해 스마트폰은 지난 10년 간 우리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한국정보통신연구원의 패널 조사에 따르면 개인 휴대폰 보유율이 2011년 89.2%에서 2019년 96.5%로 꾸준히 상승하는 하였고,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 유형 중 스마트폰의 비중은 2011년 25%에서 2019년 91.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률도 2011년에 16.8%에서 2019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47.7%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개인휴대폰보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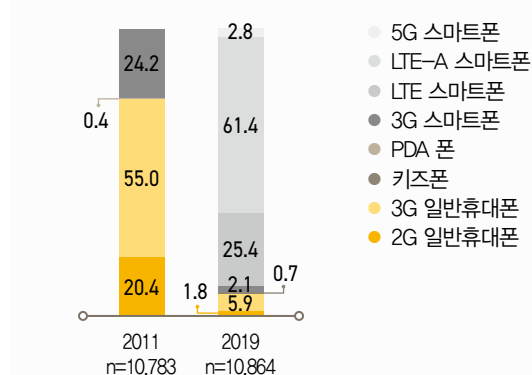
(단위: %)



자료) KISDI, 2019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재구성

휴대폰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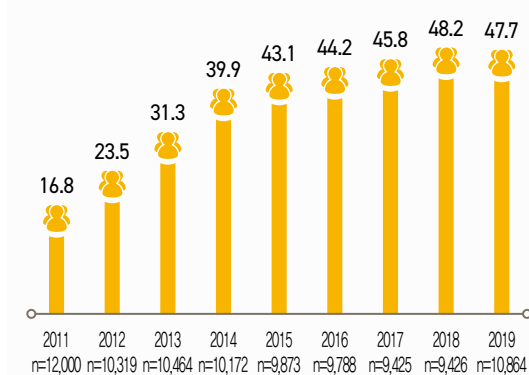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KISDI, 2019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재구성

SNS 이용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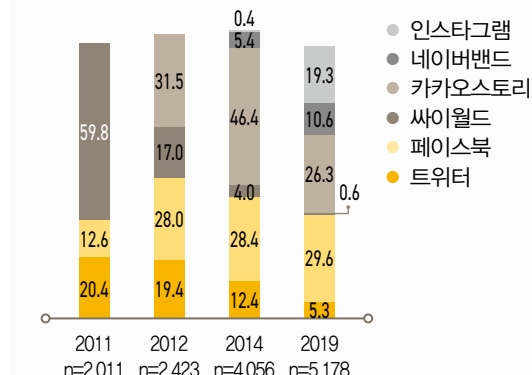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KISDI, 2019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재구성

SNS서비스 이용률 변화

(단위: %)



자료) KISDI, 2019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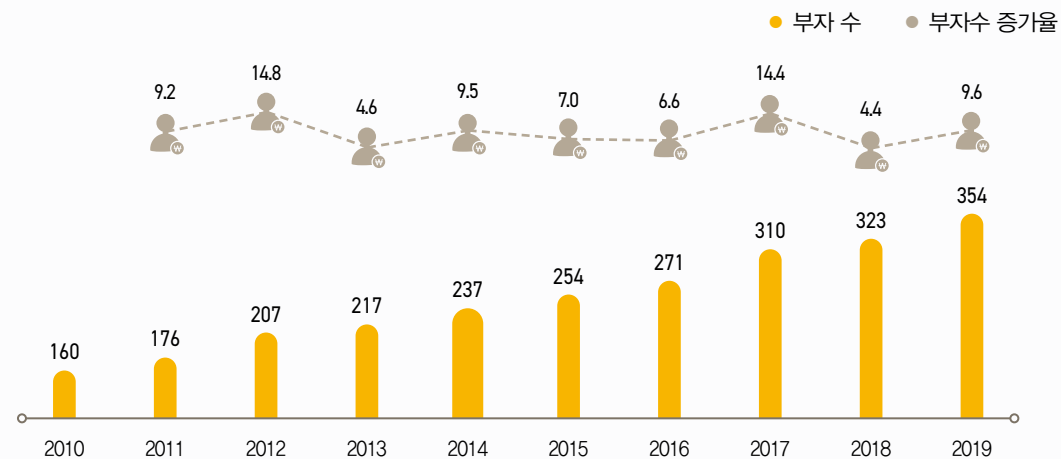
02 한국 부자 수와 자산 변화

한국 부자 수는 2010년 16만명에서 2019년 35만 4천명으로 2.2배 증가

한국부자보고서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을 '한국 부자'로 정의하고 있다. 2010년 16만명이던 한국의 부자 수는 2019년에 35만 4천명으로 10년만에 2.2배로 증가하였다. 이는 매년 9.2%씩 늘어난 수치로, 세계 부자 수가 같은 기간 중 매년 6.8%씩 늘어난데 비해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전체 인구가 불과 4.3%(연평균 0.47%) 증가한 데 비해 부자 수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 경제 규모(국내총생산, GDP)가 같은 기간 1,323조원에서 1,919조원으로 45% 성장한 데에서도 일부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한국 부자 수 추이 및 증가율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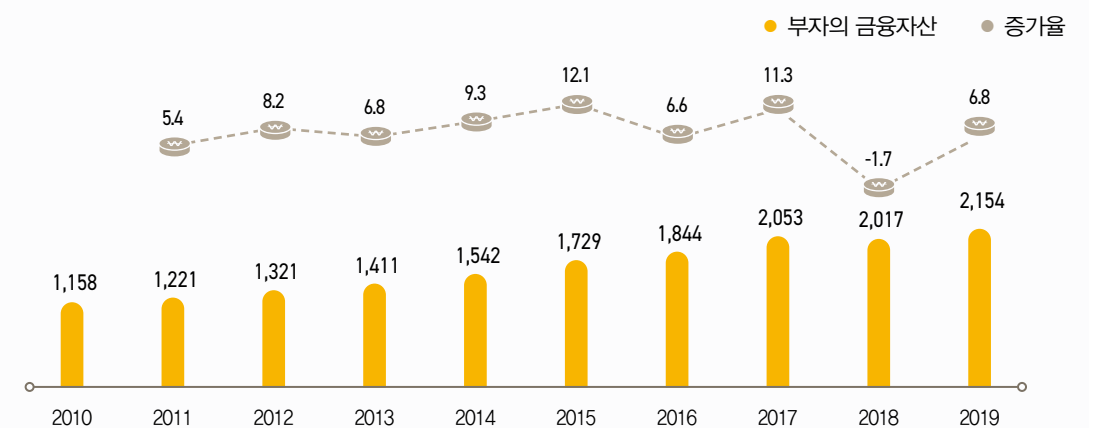


한국 부자의 자산규모는 2010년 1,158조원에서 2019년 2,154조원으로 1.9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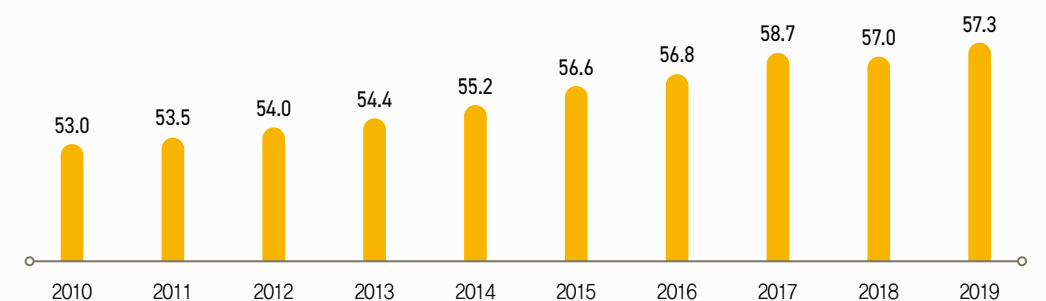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한국 가계 전체의 금융자산은 2010년 2,186조원에서 2019년 3,760조원으로 1.7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부자들의 총 금융자산은 1,158조원에서 2,154조원으로 1.9배 증가하여, 과거 10년간 부자들의 금융자산이 일반 가계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부자들의 자산 증가와 함께 새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자산까지 더해지면서 부자들의 금융자산 증가속도가 전체 가계의 금융자산 증가속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가계의 금융자산 중 부자의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3.0%에서 2019년 57.3%로 부자들의 부 집중도는 4.3%p 상승하였다.

한국 부자의 금융자산 총액 추이 및 증가율 (단위: 조원, %)



가계 전체 금융자산 대비 부자의 금융자산 비율 (단위: %)



한국 부자의 자산 중 50% 이상이 부동산자산으로 **2016년 이후 부동산 자산 비중과 금융자산 비중 간 갭 확대**

한국 부자의 보유 자산 중 50% 이상은 부동산자산, 40% 내외가 금융자산에 해당한다. 2010년대 초반에는 부자들의 자산 중 부동산자산 비중은 하락하고 금융자산 비중은 상승하였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반대로 부동산자산 비중이 상승하고 금융자산 비중은 하락하였다. 이는 2010년대 초반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약세를 보이다가 2010년대 중반부터 강세로 전환되면서 부자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에는 부동산 자산 비중의 증가세와 함께 금융자산 비중이 증가하여 같은 방향으로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는 2017년 주가지수가 급등한 결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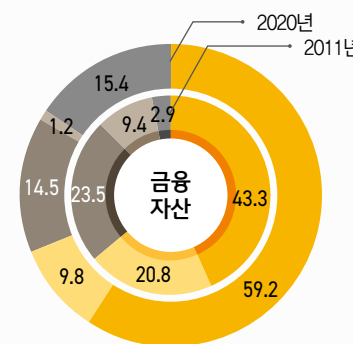
부자의 자산 중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비중이, **부동산자산은 거주용과 투자용 주택의 비중이 증가**

2011년 대비 2020년에 부자의 금융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6%p 증가하였고, 주식, 펀드의 비중은 각각 9%p, 11%p 감소하였다. 기타 중에서는 저축성보험의 증가 폭이 큰데, 2010년대 초반 이후 시행된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로 일시적으로 비중이 늘었으나, 현재는 IFRS 도입으로 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 판매에 소극적이어서 더 증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부자의 부동산자산 중 10년 전에 비해 증가한 부분은 '거주용 주택'과 '투자용 주택'으로, 2010년대 후반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보인다.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들은 10년 전에 비해 '거주용 주택'의 자산 비중이 증가하였고, 50억원이상 부자들은 '투자용 주택'의 자산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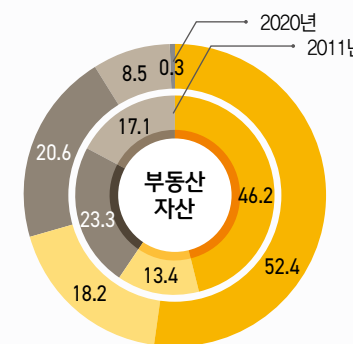
한국 부자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단위: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펀드 ● 주식
● 신탁 ● 기타(보험,채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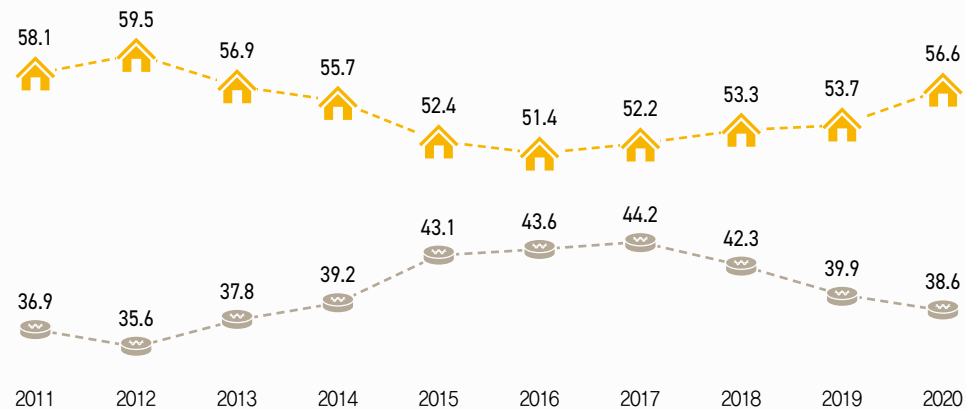
한국 부자에 부동산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단위: %)

● 거주용주택 ● 투자용주택 ● 빌딩/상가
● 토지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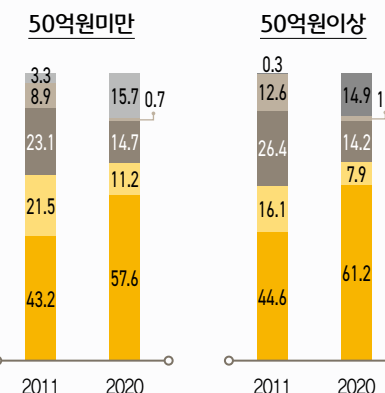
한국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단위: %)

● 부동산자산 ● 금융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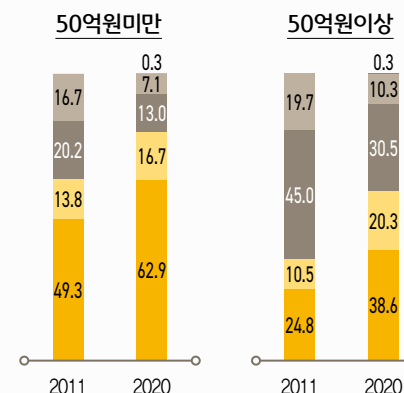
주) 중간값 기준, 기타자산 비중은 상기 그래프에서 제외

총자산규모별



주) 2011년 n=306, 2020년 n=400

총자산규모별



주) 2011년 n=306, 2020년 n=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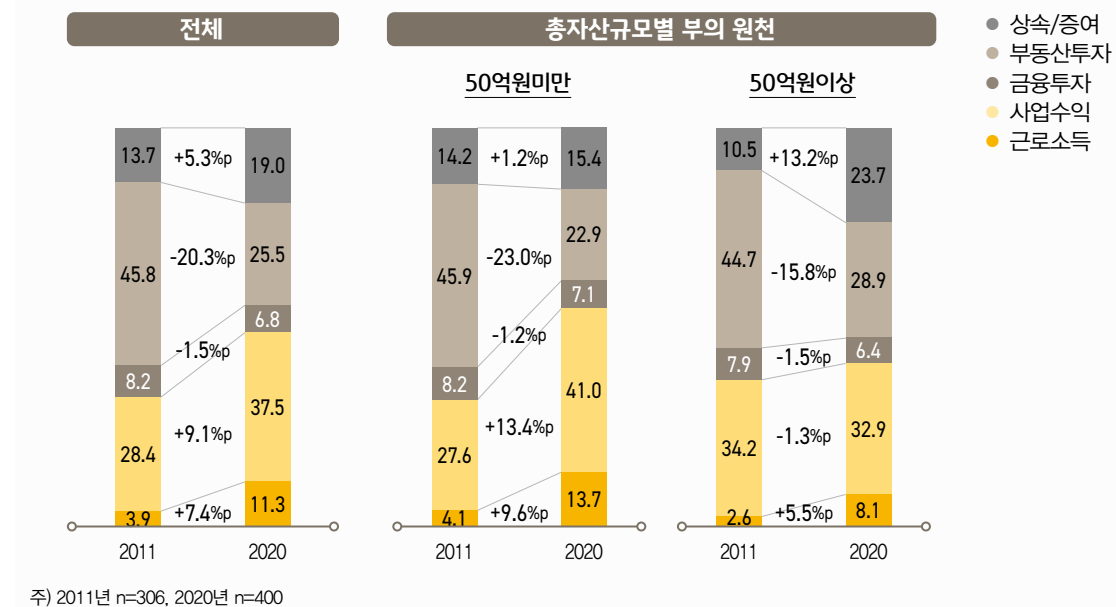
03 한국 부자의 금융 활동 변화

한국 부자가 부(富)를 이룰 수 있던 원천은 2011년 부동산투자에서 2020년 사업수익으로 변화

2019년 말 35만 4천명에 이르는 한국 부자가 부(富)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원천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업수익’(37.5%)으로, 2011년 주된 원천으로 ‘부동산투자’를 선택한 경우가 45.8%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2011년 이전 부동산자산가치 상승에 따라 부동산투자가 부의 원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2010년대 벤처와 스타트업 붐에 따른 성공사례가 나타나면서 사업수익으로 부의 원천이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총자산규모별로 부의 원천 변화에 차이가 나타났다.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는 10년전에 비해 ‘부동산투자 수익’이 부의 주된 원천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크게 감소하였고, ‘사업수익’과 ‘근로소득’이 부의 주된 원천으로 자리잡은 경우는 증가하였다. 반면 50억원이상 부자는 10년전에 비해 ‘부동산투자 수익’이 부의 원천이라는 응답이 감소하였고, ‘사업수익’도 감소하였다. 이들은 부동산투자나 사업수익보다는 ‘상속이나 증여’ 자산이 현재 부의 원천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 부자의 부의 원천 변화 (2011 vs. 20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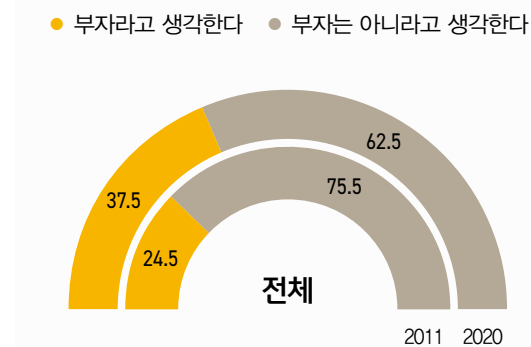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자산기준은 2011년 50억원에서 2020년 70억원으로 1.4배 증가

한국 부자들은 과거 10년 전에 비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특히 부의 원천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같이 노동을 통한 수익으로 부를 창출한 경우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10년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금융투자에 따른 수익이 부의 원천인 부자의 경우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저금리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주가 불안정,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상대적 자산가치 감소를 경험하면서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2020년 중간값 기준 70억원으로 10년 전 50억원에 비해 1.4배 증가했는데, 물가 상승, 부자 수 증가 등으로 부자의 기준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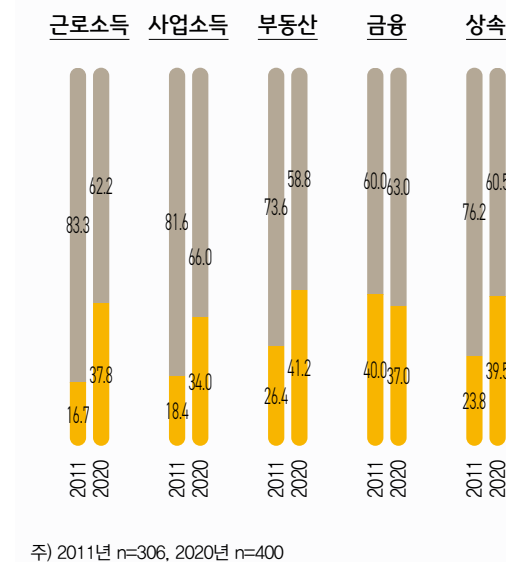
부자에 대한 인식 변화 (2011 vs. 2020) (단위: %)



부자의 최소 자산기준 변화 (2011 vs. 2020) (단위: 억원, %)



부의 원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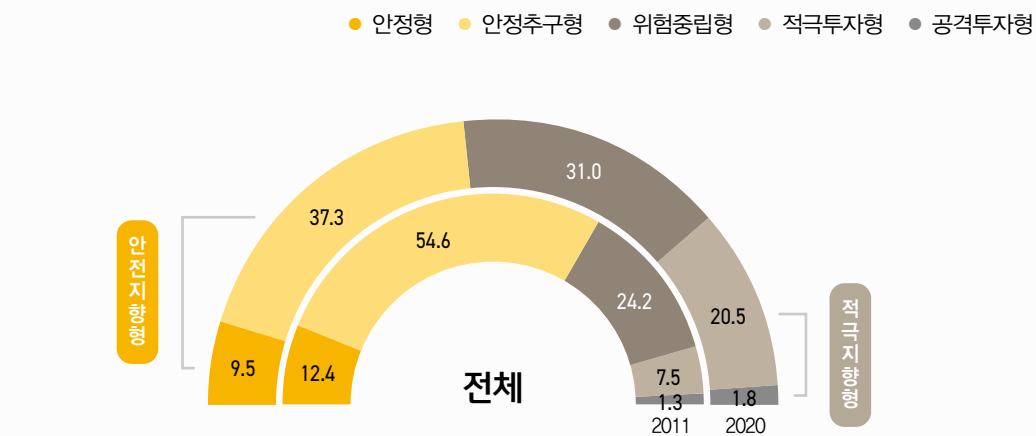


부자의 투자 성향은 안정지향형이 감소하고 적극지향형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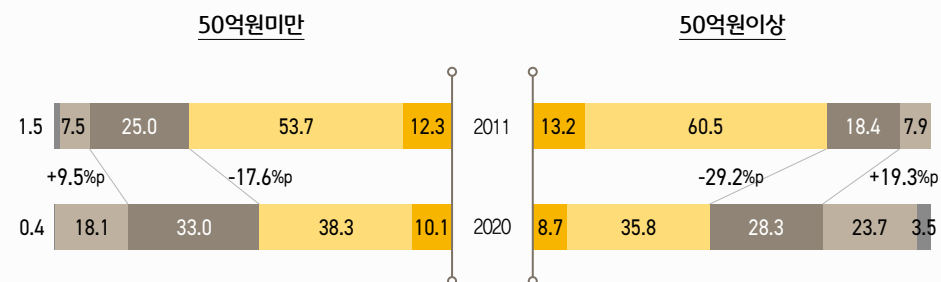
한국 부자의 투자 성향은 전반적으로 안정형과 안정추구형을 합한 '안정지향형'이 가장 많다. 그러나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추세적 차이가 나타나는데, '안정지향형'은 감소(-20.2%p)한 반면 '적극지향형'은 증가(+13.5%p) 하였다. 저금리 시대로 진입하면서 금융자산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적극지향형' 투자성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총자산규모에 따라서도 투자 성향의 변화 차이가 나타나 총자산이 많을수록 '안정지향적 투자성향'은 감소하고 '적극지향적 투자성향'은 증가하는 경향이 컸다. 이는 자산이 많을수록 더 크게 자산을 늘리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일면 보여주는 바라 하겠다.

한국 부자의 투자 성향 변화 (2011 vs. 2020) (단위: %)



총 자산규모별 투자 성향



주) 2011년 n=306, 2020년 n=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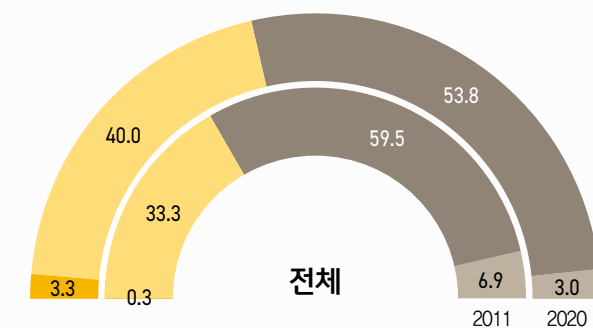
부자들은 10년전에 비해 금융투자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아졌다고 생각

2020년 현재 부자들 중 56.8%가 스스로 금융투자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거나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스스로 금융투자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자가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부자보다 여전히 비중이 높지만, 이는 2011년에 비해서는 감소한 결과이다. 2011년에 부자의 66.4%가 스스로 '높거나 매우 높은 수준'의 지식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10%p 정도 감소한 수치이다. 이는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에 대해 부자들 스스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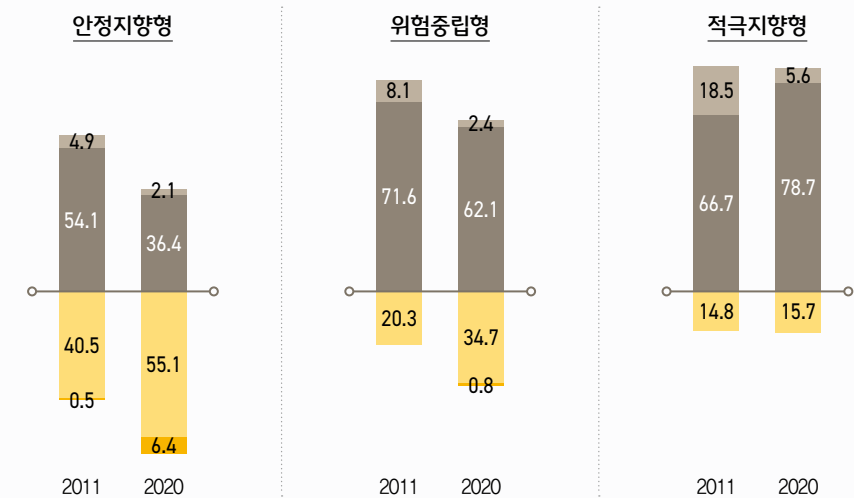
부자들이 인지하는 금융투자 지식수준 변화 (2011 vs. 2020)

(단위: %)

● 매우 낮은 수준 ● 낮은 수준 ● 높은 수준 ● 매우 높은 수준



투자성향별 금융투자 지식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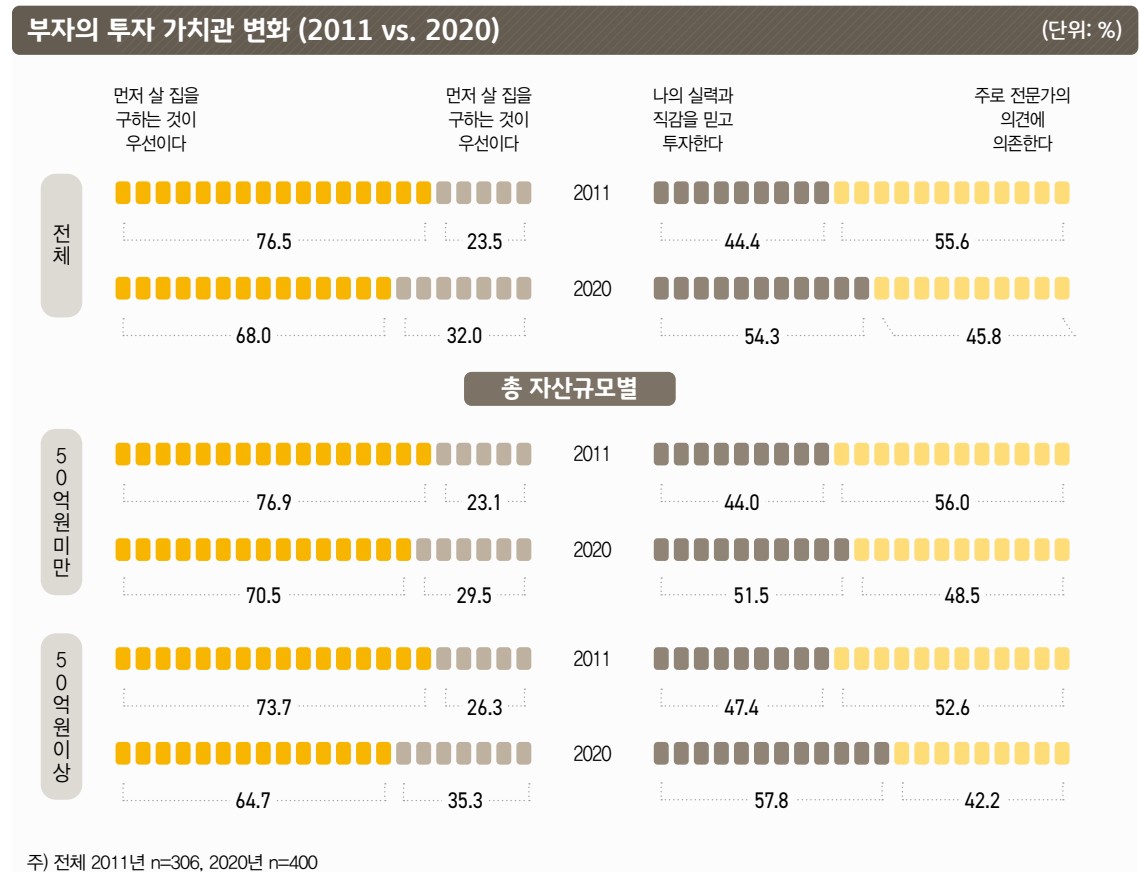


주) 전체 2011년 n=306, 2020년 n=400

부자들은 10년 전에 비해 고수익에 대한 관심과 자신의 판단에 의한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

부자들의 투자에 대한 가치관도 10년 전에 비해 많이 달라져, 거주 주택의 마련보다는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과 투자판단에 있어 전문가 의견에 대한 의존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의한 투자를 하려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이는 주거 기회비용을 회피하여 다른 고수익 투자처에 먼저 투자하겠다는 의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는 하지만 투자결정에 참고하려는 의도가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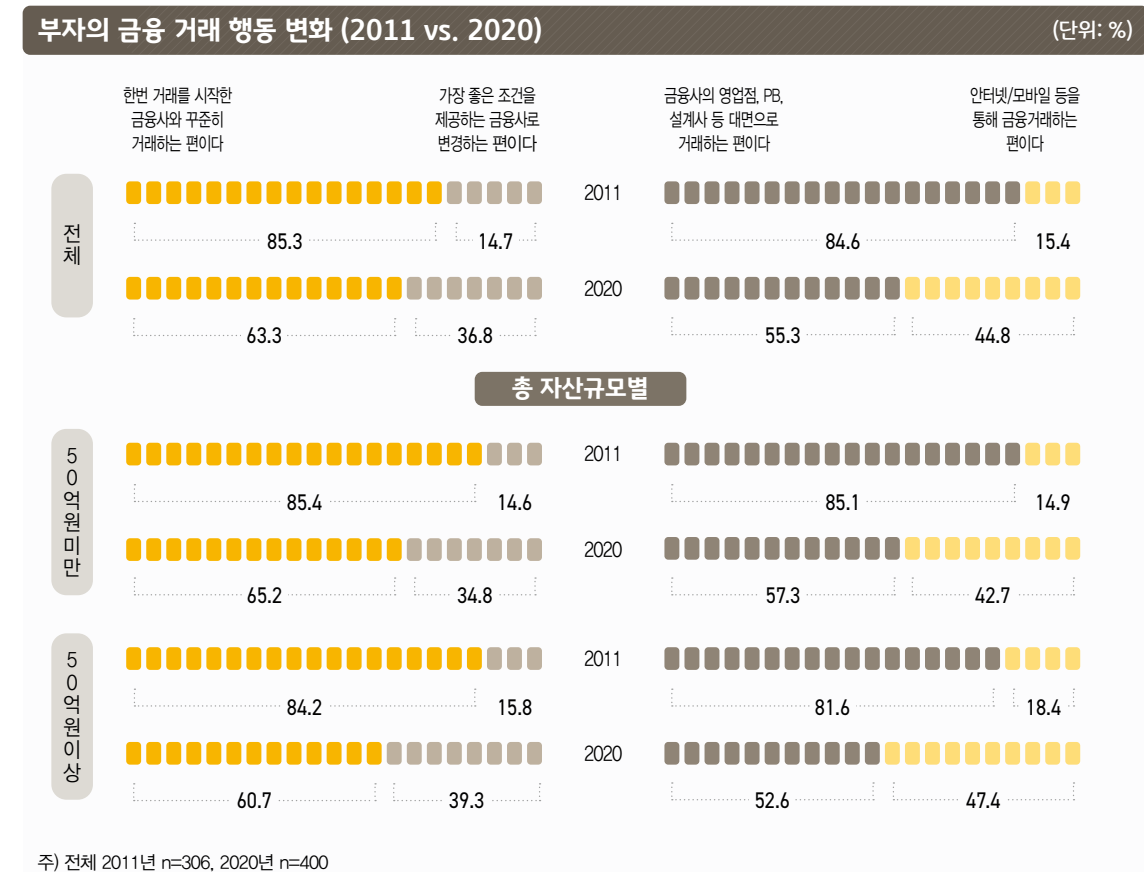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부자가 보유한 총자산 규모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데, 총자산이 많을수록 고수익 상품에 대한 관심과 본인의 책임하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의 책임하에 투자하려는 경향에서 총자산 규모별로 차이가 있었다.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들은 10년전에 비해 본인의 책임하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10.4%p가 증가하여 50억원미만 부자들의 7.5%p 증가한 데 비해 상승 폭이 컸다. 총자산이 많을수록 다양한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거주용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고, 그 기반 위에 고수익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투자자금에 여유가 있어 상대적으로 다양한 투자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점도 반영되었을 것이다.



부자들 역시 인터넷/모바일의 비대면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

2020년 현재 부자들의 63.5%가 '한번 거래를 시작한 금융사와 꾸준히 거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아직 다수의 부자들이 한번 거래를 시작한 금융사와 꾸준히 거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는 2011년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감소하여 조건에 따라 금융사를 옮기는 거래 행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점차 금융사에 대한 충성심으로 거래를 지속하기보다는 좋은 조건에 따라 금융사를 변경하는 행동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총자산 규모별로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부자들에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변화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을 거래하는 채널에서도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금융사 직원과의 대면을 통한 금융거래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2011년에 비해 2020년에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금융을 거래하는 경향이 29.4%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이 많은 50억원이상 부자들에게서 변화 비중(+29.0%p)이 좀 더 크지만 50억원미만 부자들도 비슷한 수준의 비대면 거래 비중 증가(+27.8%p)를 나타내어, 총자산 규모별로 금융사 거래 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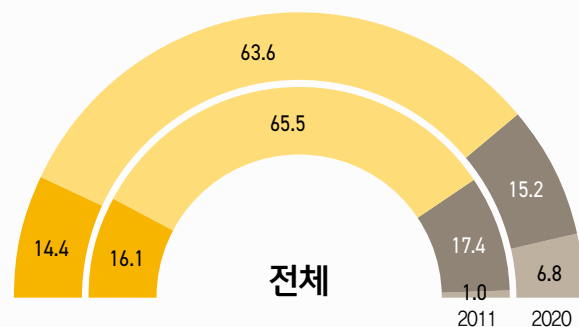
부자는 보유한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상속·증여와 함께 기부에 대한 관심 증가

부자들이 자산을 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은 ‘일부 자산은 증여하고 일부는 상속’하는 방법이다. 2020년 63.6%가 이 방법으로 자산을 이전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상속과 증여를 혼용한 방법에 대해 2011년에 65.5%가 이 방법을 선호한데 비해서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외 전부 상속하거나 전부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선호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산의 일부는 상속이나 증여하고 일부의 자산은 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선호도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에 1.0%에 불과하던 응답이 2020년에는 6.8%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한국 부자도 기부에 대한 생각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부에 대한 생각은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들에게서 증가폭이 커 2011년 대비 2020년에 7.7%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들은 4.9%p 증가에 그쳤다.

부자의 자산이전 방법 변화 (2011 vs. 20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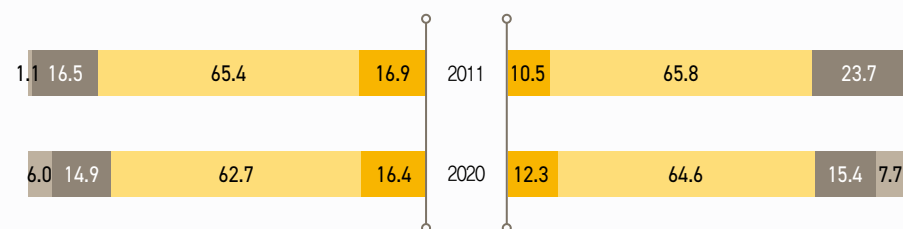
● 전부 상속 ● 일부 증여 + 일부 상속 ● 전부 증여 ● 일부 상속/증여 + 일부 기부



총 자산규모별 자산이전방법

총자산 50억원미만

총자산 50억원이상



주) 전체 2011년 n=306, 2020년 n=132 (2020년은 자산이전에 대해 생각하거나 계획을 세운 부자들만 응답)

자산을 물려주려는 대상은 자녀가 압도적이나 10년 전에 비해 배우자나 손자녀 피상속인이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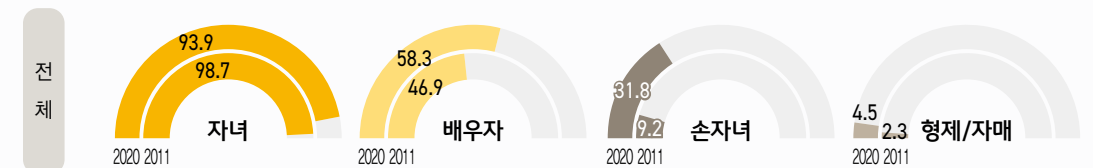
부자들은 ‘상속이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에 ‘자녀’라고 응답한 경우가 2011년 98.7%에서 2020년 93.9%로, 자산을 물려주려는 주 대상은 거의 변함없이 ‘자녀’였다. 10년전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배우자’와 ‘손자녀’로, 가장 크게 증가한 대상은 ‘손자녀’였다. 2011년에는 9.2%정도만 자산을 이전하려는 대상으로 손자녀를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데 반해 2020년에는 31.8%로 22.6%p 증가하였다.

특히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들은 ‘배우자’나 ‘손자녀’를 자산 이전 대상에 포함시킨 경우가 각각 66.2%와 36.9%로 크게 증가하였고,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들의 선호 경향이 소폭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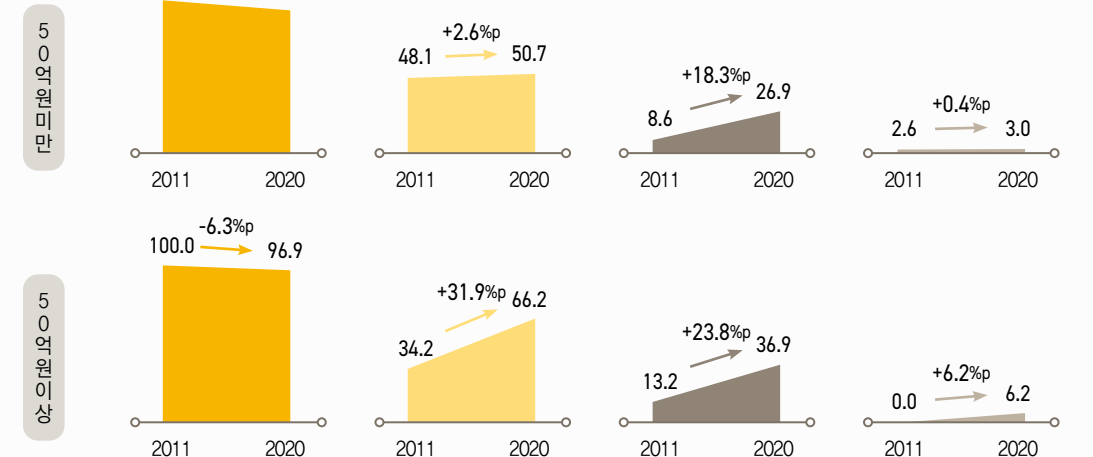
부자의 자산이전 대상 변화 (2011 vs. 2020)

(복수응답, 단위: %)

● 자녀 ● 배우자 ● 손자녀 ● 형제/자매



총자산규모별 자산이전방법



주) 전체 2011년 n=306, 2020년 n=132 (2020년은 자산이전에 대해 생각하거나 계획을 세운 부자들만 응답)



10년 전에 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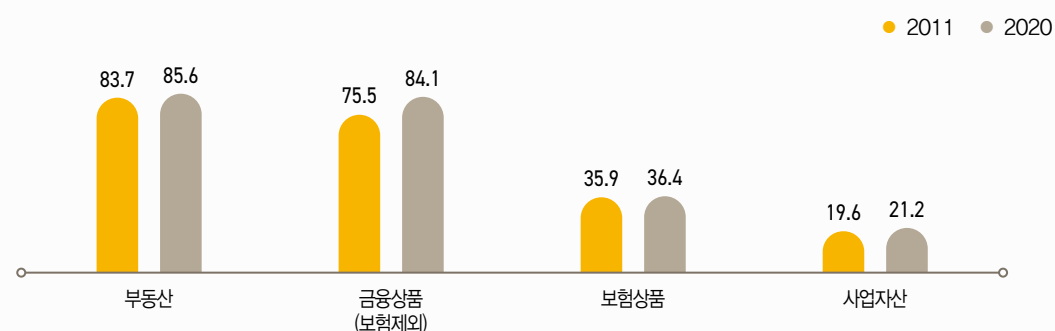
부자들의 상속·증여 자산 중 금융자산이 증가

상속/증여로 자산을 물려주려고 생각하는 부자들은 10년 전에 비해 자산 이전의 대상으로 자녀뿐만 아니라 점차 배우자와 손자녀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었다. 이와 흐름을 같이 하여 물려주는 자산의 유형에서도 부동산자산과 함께 금융자산도 물려주려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부자들 중 부동산자산을 물려주겠다고 한 경우는 2011년(83.7%)과 2020년(85.6%)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에 비해 ‘보험 외 금융상품’을 주겠다고 하는 응답은 2011년 75.5%에서 2020년 84.1%로 증가하였다.

총자산 규모별로는 물려주려는 자산 유형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들은 ‘보험’이나 ‘보험 외 금융상품’ 등 금융자산을 물려주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10년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총자산 50억원 이상 부자들은 ‘보험 외 금융상품’을 물려주겠다고 하는 응답은 증가하였으나 그 외 ‘보험’이나 ‘사업자산’을 물려주겠다고 하는 응답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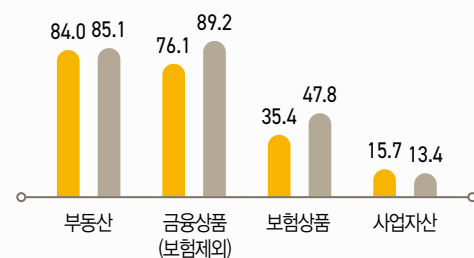
상속/증여 자산 유형 변화 (2011 vs. 2020)

(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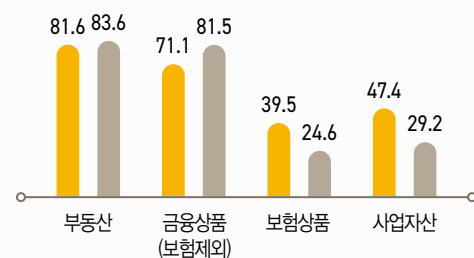


총 자산규모별 자산이전방법

총자산 50억원미만



총자산 50억원이상



주) 2011년 n=306, 2020년 n=132

PART



한국 부자 현황

01 | 한국의 부자수와 금융자산 규모

02 | 한국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03 | 부자의 기준



CHAPTER

01

한국의 부자수와
금융자산 규모

“**‘한국 부자’는 2019년 말 35만 4천명으로 전년대비 9.6% 증가, 2017년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본 고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국 부자’는 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을 의미한다. ‘한국 부자’는 2019년 말 기준 35만 4천명으로 2018년 32만 3천명에서 3만 1천명이 증가하였다. 35만 4천명의 한국 부자가 전국민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0.69%로 2018년 0.63%에서 0.06%p 상승하였다.

2019년 부자수 증가율은 2018년 대비 9.6% 증가하면서 2017년 증가율 14.4%에 이어 조사 이래 두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KOSPI지수는 2017년 말 2,467에서 2018년 말 2,041로 17.3% 급감했다가 2019년 말 다시 2,198로 7.7% 회복하였는데, 이로 인해 2018년 부자수 증가율이 낮아졌던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부자수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부자의 금융자산 규모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2019년 말 기준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2,154조원으로 2018년 대비 6.8% 증가, 전년도 증가율 -1.4%에서 상승전환되었다.

그림 01 한국의 부자수 추이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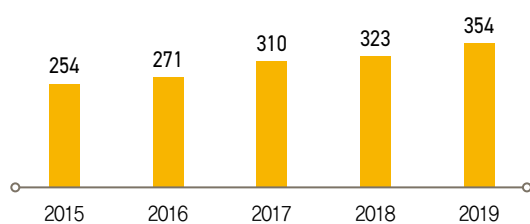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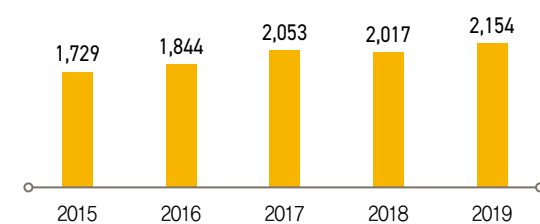


그림 02 한국 부자의 금융자산 추이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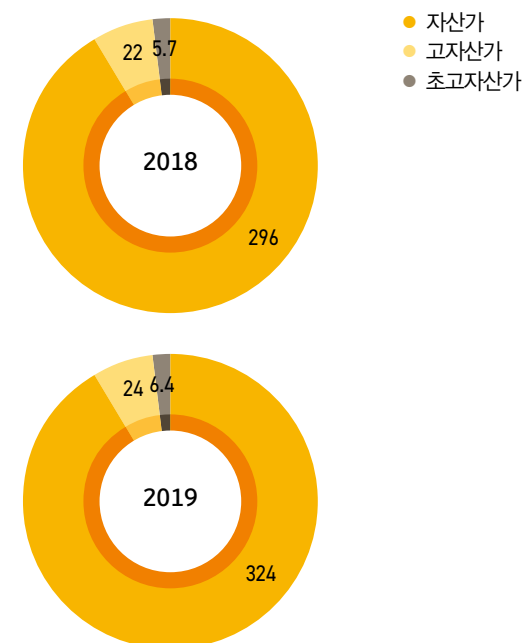
“**금융자산 300억원 이상 ‘초고자산가’는 6,400명으로, 보유 금융자산은 한국 총 가계 금융자산의 24%인 901조원에 이른다**”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한국 부자’를 좀 더 세분화하여 금융자산 10~100억원 미만의 ‘자산가’, 100억원~300억원 미만의 ‘고자산가’, 300억원 이상의 ‘초고자산가’로 나누어 보았다. 한국 부자의 90% 이상은 자산가에 해당하며, 6.9%인 2만 4천명이 고자산가, 1.8%인 6,400명이 초고자산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고자산가는 한국 인구의 0.012%에 해당한다.

자산가, 고자산가, 초고자산가가 가진 전체 금융자산 규모는 2019년말 기준 각각 823조원, 429조원, 901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 가계 금융자산의 21.9%, 11.4%, 2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부자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을 추정해보면, 한국 부자의 평균 금융자산은 60.8억원으로 자산가는 25.4억원, 고자산가는 176.4억원, 초고자산가는 1,398억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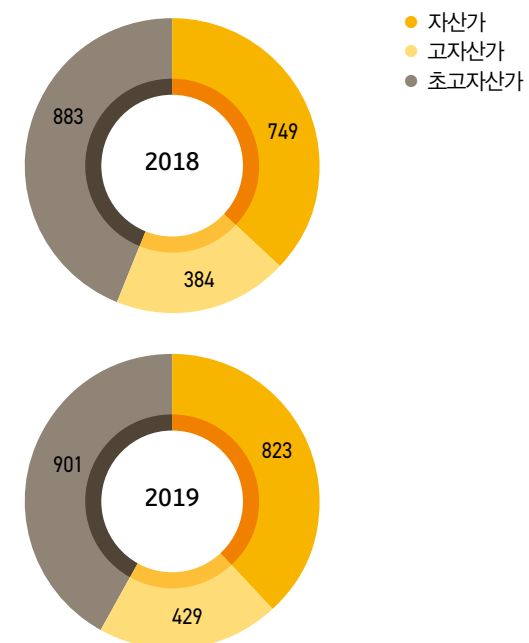
금융자산 300억원 이상을 가진 한국의 초고자산가는 인구의 0.01%에 불과하지만, 한국 가계 금융자산의 24%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1,398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03 자산규모별 부자 구분 (단위: 천명)



주) 자산가: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개인, 고자산가: 금융자산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개인, 초고자산가: 금융자산 300억원 이상 개인

그림 04 부자 구분별 금융자산 규모 (단위: 조원)



주) 자산가: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개인, 고자산가: 금융자산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개인, 초고자산가: 금융자산 300억원 이상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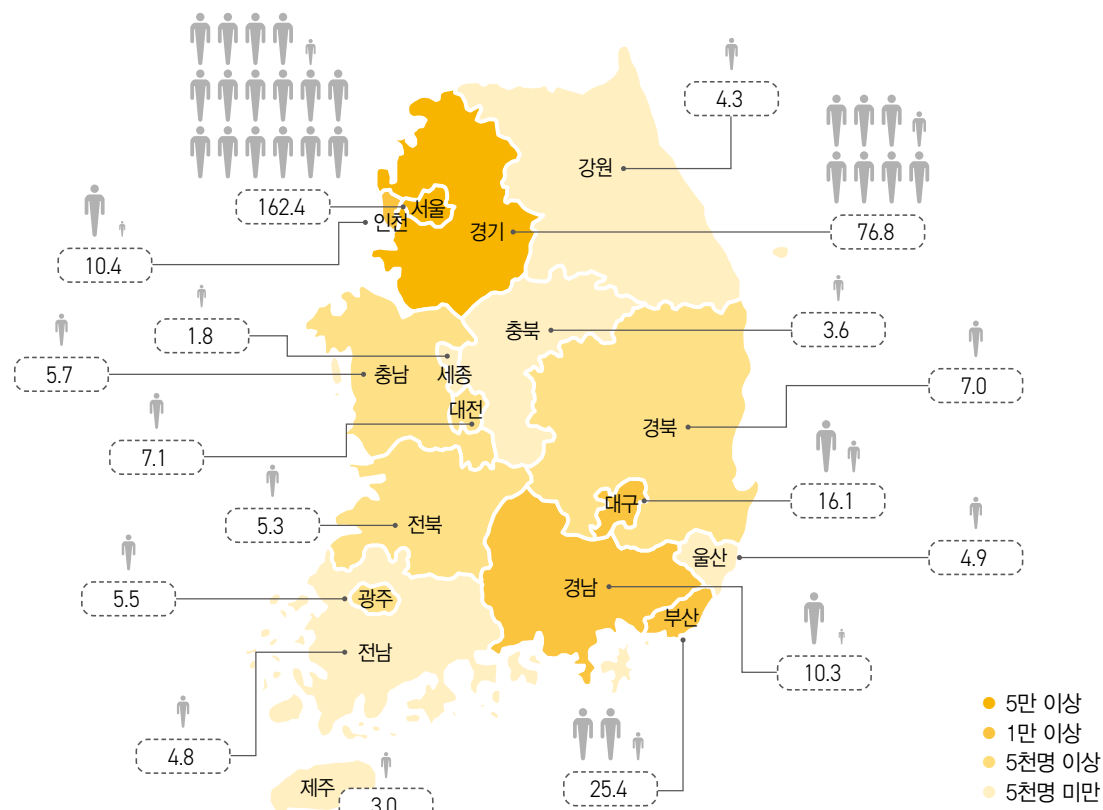
”
한국 부자는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70.4%가 집중되어 있고, 그 외 부산, 대구, 경남 지역 순으로 부자가 많이 살고 있다

한국 부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45.8%인 16만 2천명이 서울에 살고 있으며, 경기(7만 7천명), 부산(2만 5천명), 대구(1만 6천명), 인천(1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한국 부자의 70.4%(전년 대비 +0.8%p)가 살고 있으며, 인천시를 제외한 5대 광역시에 16.7%(-0.6%p), 경기도를 제외한 기타 지방에 12.9%(-0.3%p)의 부자가 살고 있다. 한국 부자의 수도권 비중은 전년도 69.6%보다 0.8%p 증가하면서 70%를 돌파하였다.

서울 내에서는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집중도가 높아 서울에 사는 부자의 46.7%(전년 대비 +0.1%p)가 이 지역에 살고 있다. 그 외 서울 강북지역에 32.7%(-1.0%p),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강남지역에 20.7%(+1.0%p)가 거주하고 있다.

그림 05 지역별 부자수 현황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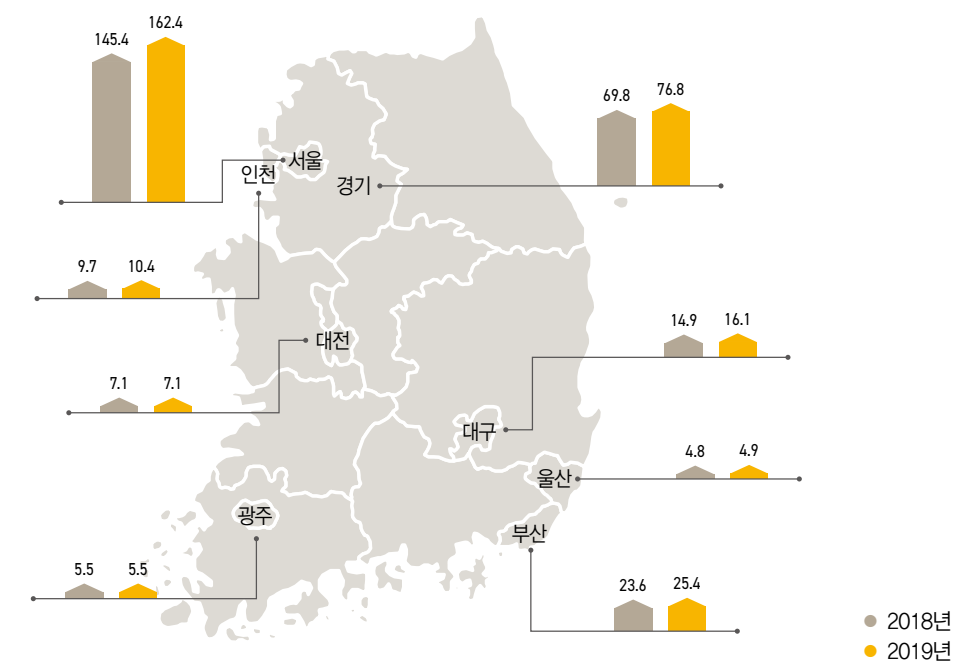


”
2019년 한국의 부자는 총 3만 1천명이 증가하였는데, 서울 및 수도권에서 2만 4천 7백명이 증가하였다

한국 부자는 2018년 32만 3천명에서 2019년 35만 4천명으로 3만 1천명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부자의 70.4%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서의 부자수 증가폭이 크다. 서울 부자는 2018년 14만 5천 4백명에서 2019년 16만 2천 4백명으로 1만 7천명이 증가하였고, 경기 부자는 7천명, 인천 부자는 7백명이 증가하여 서울 및 수도권에서만 2만 4천 7백명이 증가하였다. 서울에서 증가한 1만 7천명의 부자 중 8천명이 강남 3구에서 증가하였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외 가장 많은 부자가 증가한 지역은 부산으로 2018년(2만 3천 6백명) 대비 2019년(2만 5천 4백명)에 1천 8백명이 늘었으며, 대구시 1천 2백명, 경북 900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림 06 지역별 부자수 증감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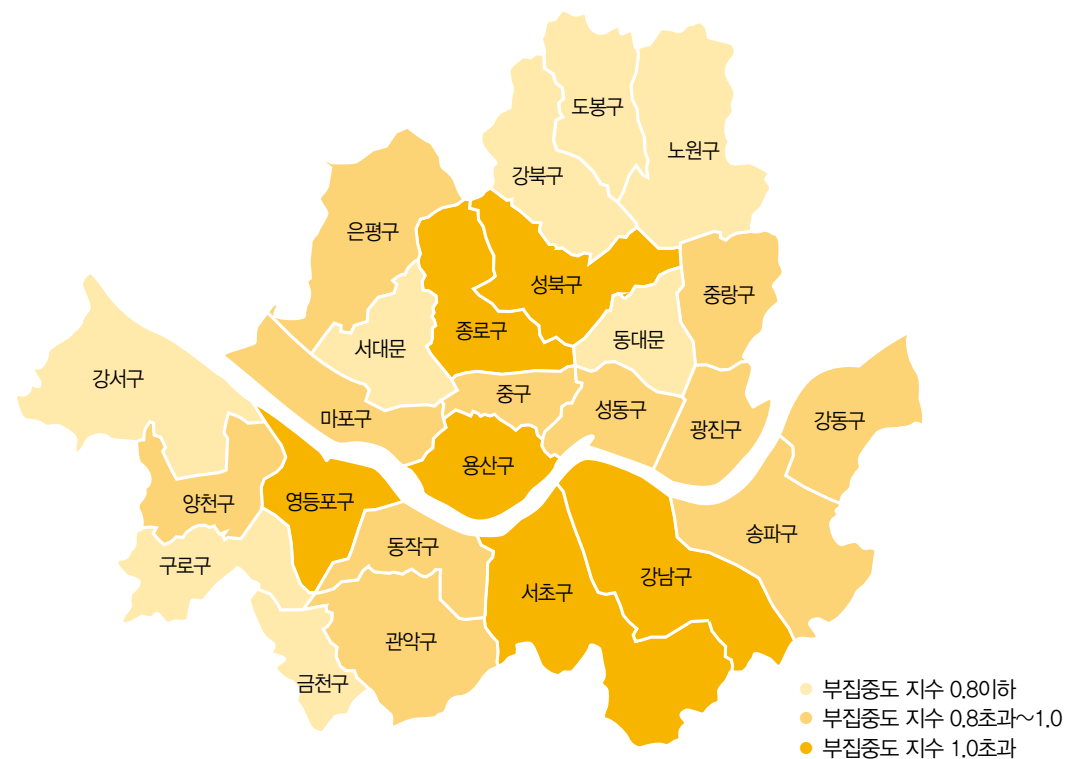
”

서울의 부집중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성북구, 용산구, 영등포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자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한 초고자산가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별 ‘부집중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부집중도 지수’는 자치구별 부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총액 비중을 자치구별 부자수 비중으로 나눈 것으로, 이 지수가 1을 넘으면 해당 지역의 부집중도가 높아 초고자산가의 비중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2019년에도 여전히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성북구, 용산구, 영등포구의 6개 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의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07 서울시 자치구별 부집중도 지수



주) 부집중도 지수 = 자치구 부자들의 금융자산 비중 / 자치구 부자수 비중. 부집중도 지수가 1 이상이면 부자수 대비 금융자산이 많아 부가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 있고 고자산가 비중이 더 높은 것을 의미

CHAPTER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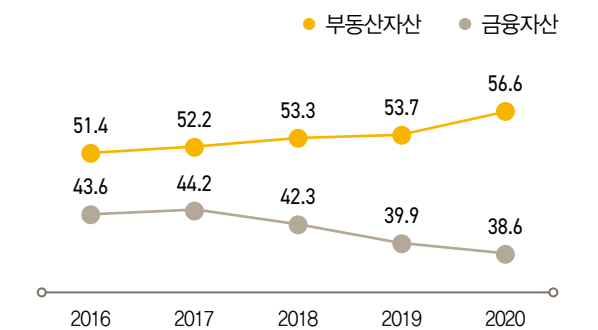
한국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

부자의 총자산은 56.6%의 부동산자산과 38.6%의 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동산자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20년 한국 부자의 총자산은 부동산자산 56.6%와 금융자산 38.6%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 회원권이나 예술품 등 기타자산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부자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 주택가격, 특히 고가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일반 가구의 총자산은 부동산자산 72.1%와 금융자산 17.2%로 구성되어 있는데¹ 부자의 금융자산 비중은 일반 가구의 두 배 이상으로 높다. 일반 가구의 경우 자산 대부분이 시가 수억원 내외의 주택 한 채와 금융자산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부동산자산 비중이 높게 형성된다.

그림 08 부자의 자산구성비 추이 (단위: %)



주1) 기타 포함 100%. 기타는 그래프에서 제외
주2) 중간값 기준

* 이하(1-2)부터는 한국 부자들의 생활 및 금융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자산 10억원이상 부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됨

¹ 통계청(2020),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 재분석(전월세보증금 5.9%를 부동산자산에 포함하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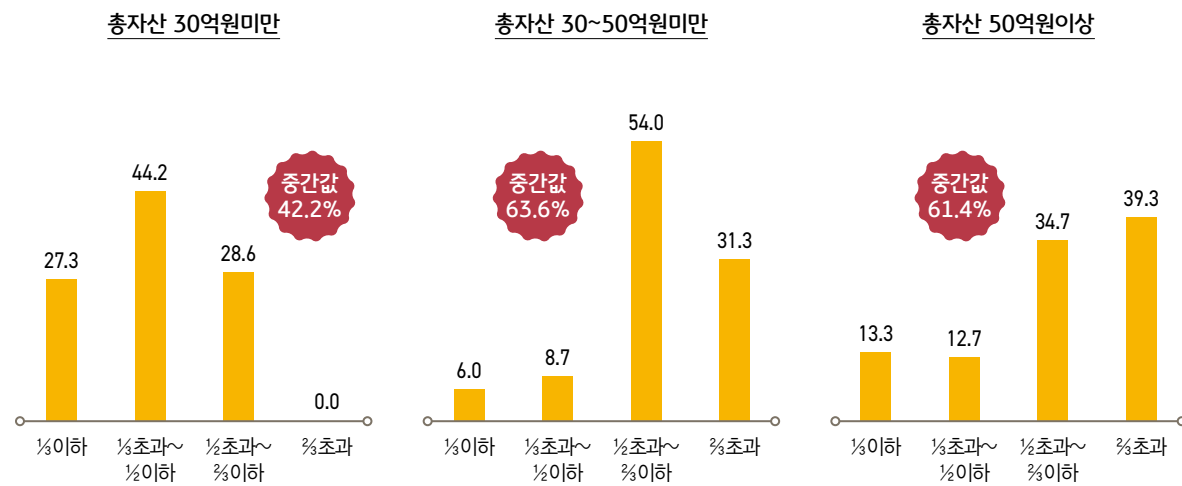
부자들의 총자산이 많을수록 부동산자산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부자들의 자산 중 부동산자산 비중은 총자산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총자산이 많을수록 부동산자산 비중이 높았다. 이를 확인하고자 총자산 규모별로 부동산자산 비중 분포를 비교해 보았다. 우선 부동산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가구는 ‘총자산 30억원미만’ 부자에서 28.6%, ‘총자산 30억원~50억원미만’ 부자에서 85.3%,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에서 74.0%로 나타났다. 부동산자산 비중이 66.7% 이상인 가구로 한정하면 ‘총자산 30억원~50억원미만’ 부자에서 31.3%,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에서 39.3%로 나타났다.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의 부동산자산 비중 중간값은 61.4%로 총자산 30억원~50억원미만 부자의 63.6%에 비해 적다.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 중에서는 부동산자산이 총자산의 절반 이하인 경우가 26.0%로 금융상품에 절반 이상의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가 총자산 30억원~50억원미만 부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총자산이 많아질수록 주택, 상가 등 부동산 외에 다양한 금융상품 위주로 투자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09 총자산별 부동산자산 비중 분포

(단위: %)



주1) 부동산 비중 = 부동산자산 / (부동산자산 + 금융자산) 중간값 (42.2%, 63.6%, 61.4%)

주2) 총자산 30억원 미만 부자는 금융자산 10억원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자산 비중이 %를 넘을 수 없음

거주주택 제외시 총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부동산자산 비중이 5.7%p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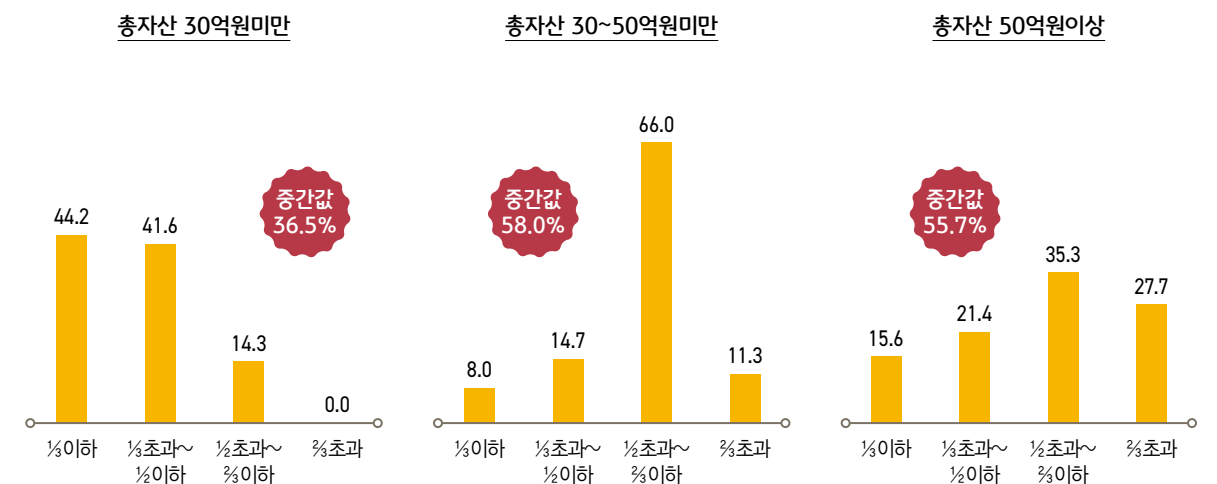
거주주택은 투자자산으로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산 중 부동산자산 비중을 보기 위해 거주주택을 제외한 수치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거주주택 제외 시, 총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5.6~5.7%p 가량의 부동산자산 비중 하락이 나타났다.

‘총자산 30억원미만’ 부자의 경우, 부동산자산 비중이 1/2 초과인 경우가 28.6%에서 14.3%로 절반으로 감소하였으며, 부동산자산 비중이 1/3 이하인 경우가 27.3%에서 44.2%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총자산 규모가 30억원 이하인 경우는 거주주택을 제외하면 투자자산의 대부분이 금융자산임을 의미한다.

‘총자산 30억원~50억원미만’,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자산 비중이 2/3 초과인 경우가 크게 감소하였고, 부동산자산 비중이 1/3 초과 ~ 1/2 이하인 경우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자산이 50억원 미만이면 부동산 자산이 1/2 초과 ~ 2/3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총자산이 50억원을 넘어서면 투자자산의 분포가 다양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 거주주택 제외 투자자산 비중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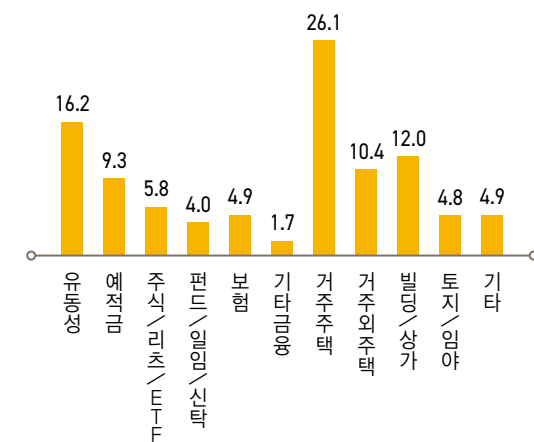
주) 거주주택 제외 부동산 비중 = 거주주택 제외 부동산자산 / (거주주택 제외 부동산자산 + 금융자산) 중간값 36.5%, 58.0%, 55.7%

한국 부자의 총자산 항목 중, 거주주택의 비중이 26.1%로 가장 크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빌딩/상가의 비중은 크게 하락하였다

한국 부자들의 총자산 포트폴리오는 거주주택이 26.1%로 가장 비중이 크다. 고가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거주주택 비중이 전년도 19.7%에서 6.4%p나 상승하였다. 그 뒤로는 유동성금융자산(16.2%), 빌딩/상가(12.0%), 거주외 주택(10.4%), 예적금(9.3%)이 뒤를 이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년도에는 빌딩/상가 비중이 17.9%로 2위였고, 유동성금융자산이 14.0%로 3위였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빌딩/상가의 가치가 하락하고, 시장 급변동에 따른 유동성자금 확대 보유로 두 자산의 순위가 바뀌었다. (4장 코로나19 영향 분석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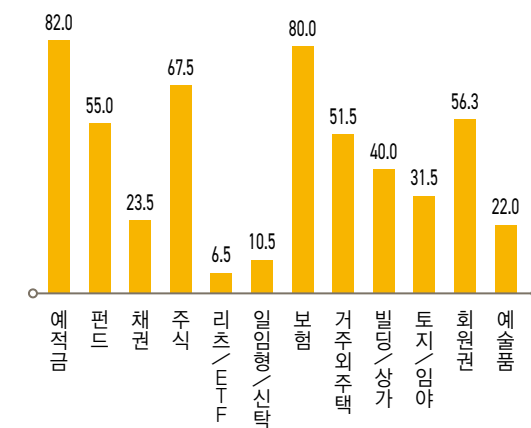
자산별 보유율은 예·적금과 투자/저축성 보험의 보유율이 각각 82.0%, 80.0%로 5명중 4명의 부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은 67.5%로 3명 중 2명가량이 보유하고 있다. 그 뒤로는 회원권(56.3%), 펀드(55.0%), 거주외 주택(51.5%)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펀드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보유율이 10%p 이상 하락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가치 급락으로 투자를 정리한 경우가 다수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빌딩/상가, 토지/임야, 채권, 예술품이 그 뒤를 이어 20~40% 가량의 보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11 부자의 자산 세부구성비 추이 (단위: %)



주1) 유동성금융자산 = 현금+수시입출금+MMF/MMT
주2) 개인 구성비의 평균 수치

그림 12 자산별 보유율 (단위: %)



주) 보유율 100%인 현금, 요구불/수시입출식예금, 거주주택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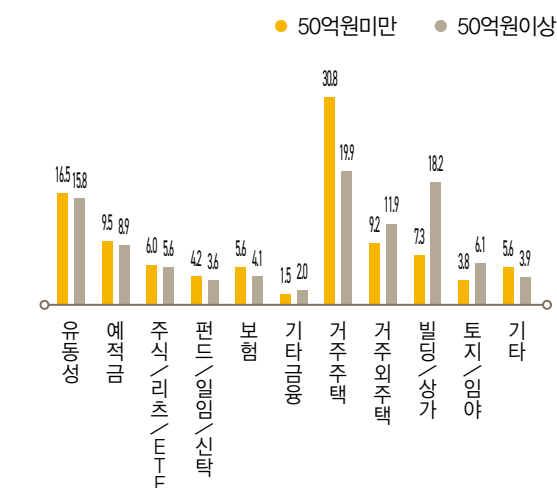
부자들은 보유한 총자산 규모가 클수록, 토지/임야, 회원권, 채권, 예술품 등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확대한다

부자의 총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은 거주주택으로 26.1%를 차지하였다. 거주주택 제외 투자자산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부자의 총자산 규모에 따라 투자여력과 관심영역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의 거주주택 비중이 19.9%인데 비해 50억원미만 부자는 30.8%로 총자산의 1/3에 육박하고 있다. 총자산 규모가 클수록 거주주택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자산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다.

거주주택 비중이 적은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빌딩/상가' 비중이 18.2%로 총자산 50억원미만(7.3%)에 비해 2배 이상 크다. 빌딩/상가는 두 그룹간 보유율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데,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 중 빌딩/상가를 보유한 경우는 24.7%인데 비해 50억원이상 부자는 60.1%가 빌딩/상가를 가지고 있어 보유율 격차가 가장 큰 자산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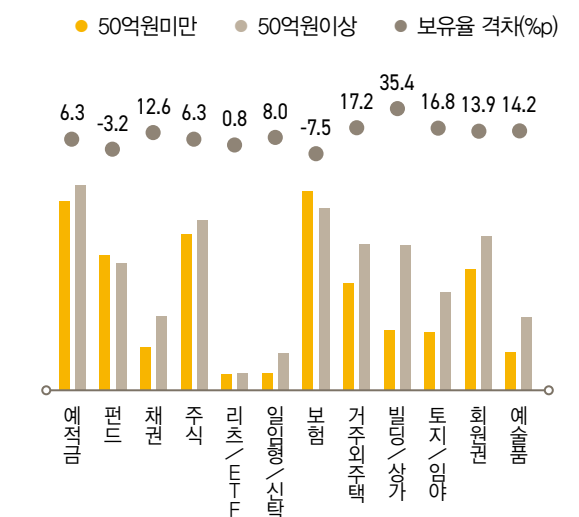
이외에도 거주외 주택, 토지/임야, 회원권, 예술품, 채권 등에서 총자산 규모별로 보유율에 10%p 이상의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총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더 다양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가 확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 총자산규모별 자산 비중 차이 (단위: %)



주1) 유동성금융자산 = 현금+수시입출금+MMF/MMT
주2) 총자산 50억원미만 n=227, 50억원이상 n=173

그림 14 자산규모별 자산 보유율 차이 (단위: %, %p)



주) 보유율 100%인 현금, 요구불/수시입출식예금, 거주주택 제외

CHAPTER 03

부자의 기준

한국 부자들은 총자산이
70억원은 되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였다

‘한국에서 부자라면 얼마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 총자산 70억원 이상은 되어야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중간값으로 응답자의 분포를 하나의 값으로 대표하기 위해 중간값을 사용하였다.

부자의 기준으로 총자산 50억원 미만을 선택한 부자는 전체 27.5%이고, 100억원초과를 선택한 부자가 16.0%로 1/2정도 부자들(55.5%)은 부자의 기준으로 총자산 ‘50억원~100억원’을 생각하고 있다.

그림 15 부자의 기준 금액

(단위: %)



주) n=400

부자들은 총자산 기준 ‘60억원이상’,
부동산자산 기준 ‘40억원이상’일 때 자신이 부자임을 자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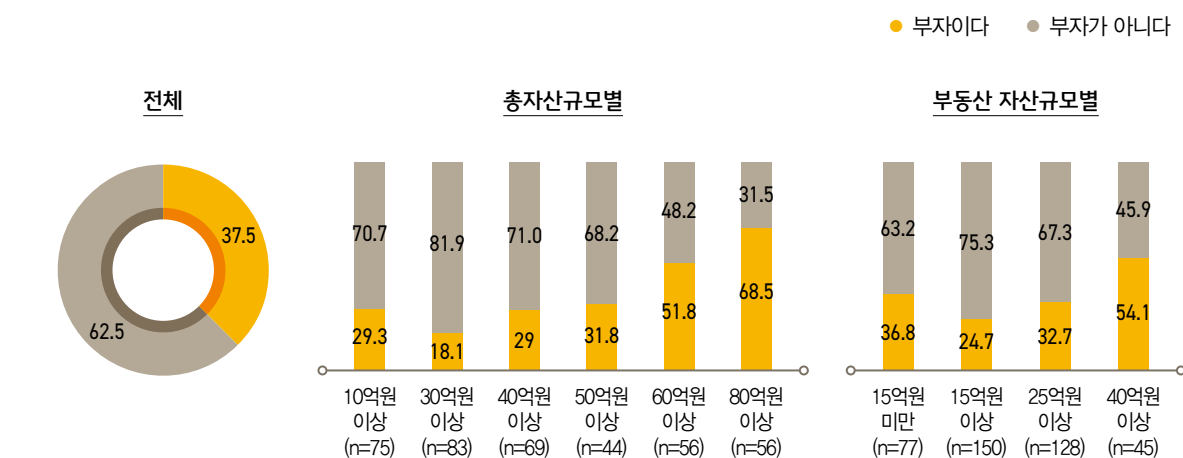
한국부자 중 37.5%는 ‘지금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비율은 자신이 보유한 총자산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총자산이 ‘10억원이상~30억원미만’인 경우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29.3%에 불과하지만, 총자산 80억원이상인 경우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68.5%로, 총자산이 많을수록 자신이 부자임을 자각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외로 총자산 ‘30억원~50억원미만’ 구간에 진입한 부자의 경우 ‘10억원~30억원미만’에 비해 오히려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다. ‘50억원~60억원미만’ 부자부터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시 높게 나타나다가 ‘60억원이상’ 부자부터 절반 이상이 자신을 ‘부자’라고 인식한다.

부동산 자산규모별 부자 자각도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부동산 자산규모 15억원 미만 부자의 경우 자신을 부자라 생각하는 비율이 36.8%에 이르지만 ‘15억원~40억원미만’ 구간에서 낮아지다가 40억원 이상에서 50%를 넘어선다. 이는 부동산 자산의 경우 ‘40억원’이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선이기 때문이다.

그림 16 자산 규모별 부자 자각도

(단위: %)



주) 전체 n=400

PART



부자의 투자 행태

01 | 부자의 투자 성향

02 | 부자의 투자 행동

03 | 부자의 향후 투자 전략



CHAPTER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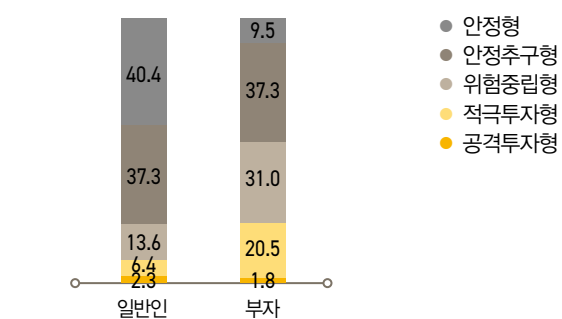
부자의
투자 성향

한국 부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공격지향적 투자성향을 보이고,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더욱 공격지향적 투자성향을 보인다

투자성향은 자산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부자들이 어떻게 자산을 모았을 지가 궁금한 상황에서 그 생각을 엿볼 수 있는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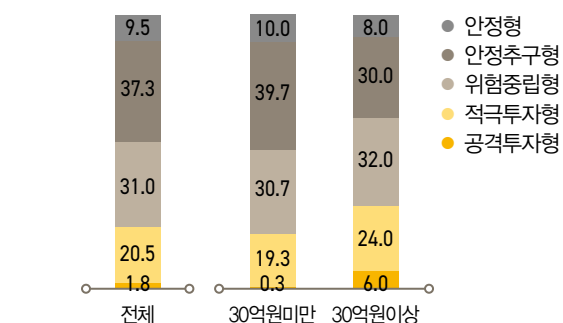
한국의 부자는 일반인에 비해 공격지향적 투자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익률만큼 손실률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적극투자형’과 ‘공격투자형’의 비율은 일반인은 8.7%이지만 부자는 22.3%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위험을 적극적으로 감수하는 ‘공격투자형’의 경우 금융자산 30억원이상에서 6.0%, 30억원미만에서 0.3%로 자산이 많을수록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부를 증식하려는 니즈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7 금융 투자성향 비교(부자 vs. 일반인) (단위: %)



주1) 일반인 n=3,000 (2018 KB 골드라이프 보고서)
주2) 부자: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개인, n=400

그림 18 금융자산규모별 금융 투자 성향 (단위: %)



주) 전체 n=400, 30억원미만 n=300, 30억원이상 n=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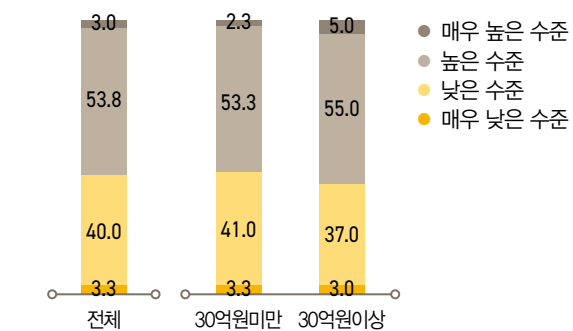
부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투자 지식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며,
투자성향이 공격적일수록 자신의 투자 지식수준을 높게 평가한다

부자들은 전반적으로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지식수준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부자들의 56.8%는 자신의 지식수준을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높은 수준 이상이라 생각하고 있다.

투자 지식수준에 대한 자신감은 금융자산규모별 유사하게 나타났다. 자신의 투자 지식수준이 ‘높은 수준’ 이상이라 생각하는 비율은 금융자산 30억원이상 부자의 경우 60.0%, 30억원미만 부자의 경우 55.5%로 금융자산규모와 무관하게 절반 이상의 부자가 자신의 투자 지식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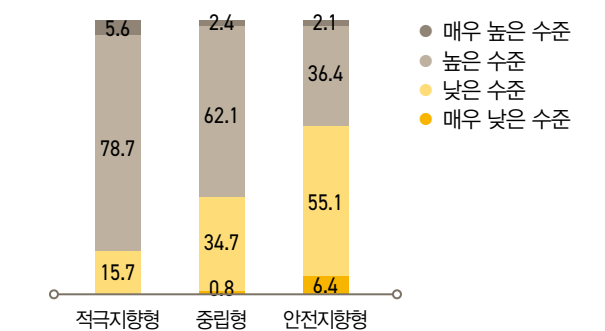
반면 금융상품 투자 지식수준은 투자성향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보일수록 본인의 지식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적극지향형 투자성향을 가진 부자의 경우 ‘투자 의사 결정을 스스로 내려본 경험이 없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 응답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으며 84.3%가 본인의 투자 지식이 높은 수준 이상이라 생각하고 있다. 중립형의 64.5%, 안정지향형의 38.5%가 본인의 투자 지식이 높은 수준 이상이라 생각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적극지향형의 투자 지식수준에 대한 자신감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적극적으로 투자 자산을 운용하며 경험치가 높아져 스스로 투자 지식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림 19 금융자산규모별 투자 지식수준 비교 (단위: %)



주) 전체 n=400, 30억원미만 n=300, 30억원이상 n=100

그림 20 투자성향별 투자 지식수준 비교 (단위: %)



주) 적극지향형 n=89, 중립형 n=124, 안정지향형 n=187

CHAPTER

02

부자의 투자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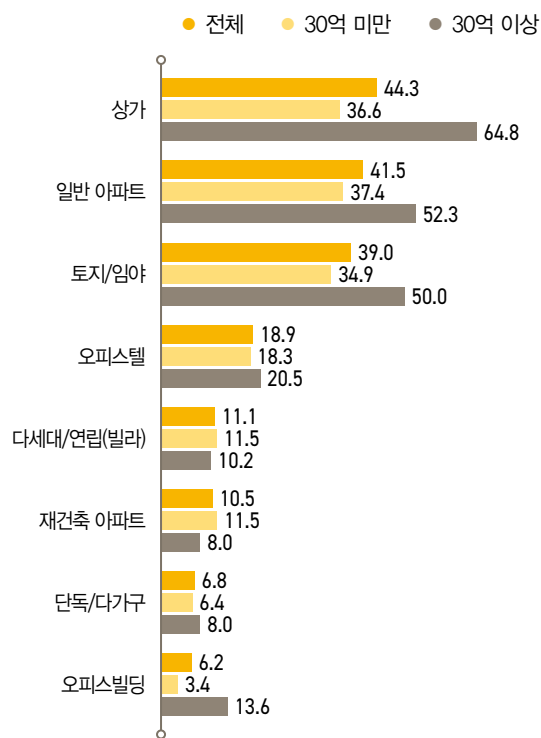
부자들의 거주외 부동산 보유 비율은 ‘상가’, ‘일반아파트’, ‘토지/임야’ 순이고, 자산이 많을수록 ‘상가’의 보유 비율이 높다

조사 대상 부자들 중 80%가 거주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가(44.3%), 일반 아파트(41.5%), 토지/임야 (39.0%) 순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거주외 부동산 종류별 현재 보유중이라 응답한 비율은 금융자산 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금융자산 30억 미만 부자의 경우 일반 아파트(37.4%)를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상가(36.6%)와 토지/임야 (34.9%) 보유 응답이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금융자산 30억이상의 경우 상가(64.8%)를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이 일반 아파트(52.3%)와 토지/임야 (50%)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오피스빌딩을 보유중이라는 응답이 30억이상에서 13.6%로 30억미만의 3.4% 대비 높았는데, 이는 자산이 많을수록 상가, 오피스빌딩과 같이 임대료를 통한 현금흐름과 동시에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주외 부동산 투자 니즈가 높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림 22 금융자산규모별 거주외 부동산 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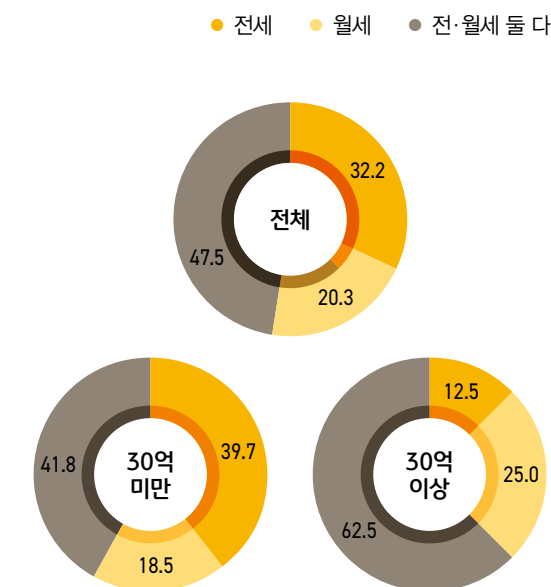
주1) 전체 n=323, 30억미만 n=235, 30억이상 n=88
주2) 복수응답

거주외 부동산 보유 부자의 평균 전·월세 임대보증금 금액은 7억원이었고,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전세보다는 월세를 보유한 경우가 더 많았다

거주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 중 47.5%가 전세와 월세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고, 전세 보유는 32.2%, 월세 보유는 20.3%로 나타났다. 전·월세 보유 현황은 금융자산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금융자산 30억원 미만의 경우 전세가 39.7%, 월세가 18.5%, 둘 다 보유가 41.8%로 전세만 보유한 경우가 월세만 보유한 경우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반면 30억원이상 부자의 경우 전세 12.5%, 월세 25.0%, 둘 다 보유가 62.5%로 월세 보유가 2배 이상 높았다. 보유 자산이 많을수록 시세차익 중심 투자에서 점점 상가, 오피스빌딩 등 임대료를 통한 지속적 현금흐름 발생이 가능한 부동산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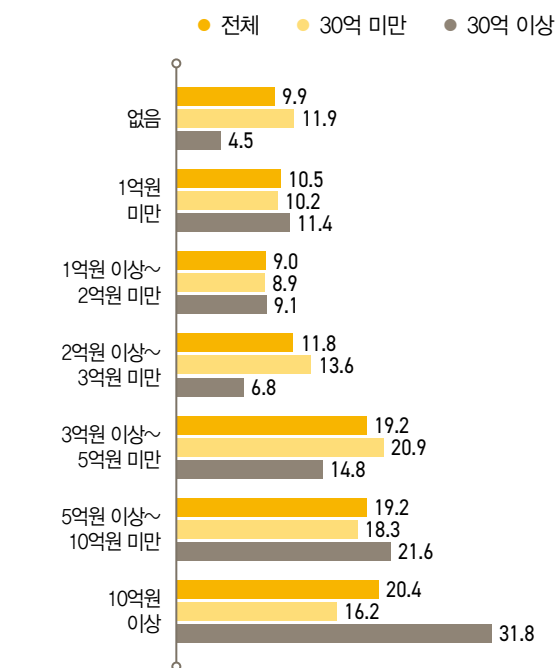
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전·월세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은 평균 7억원이었다. 금융자산 30억원미만의 부자가 전·월세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의 평균은 5억 8천만원이고,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받고 있다는 응답이 20.9%로 가장 많았다. 30억원이상의 경우 받은 임대보증금의 평균은 10억 1천만원이고, ‘10억원 이상’ 받고 있다는 응답이 31.8%로 가장 많았다.

그림 23 거주외 부동산 전·월세 보유 현황 (단위: %)



주) 전체 n=202, 30억미만 n=146, 30억이상 n=56

그림 24 전·월세 임대 보증금 금액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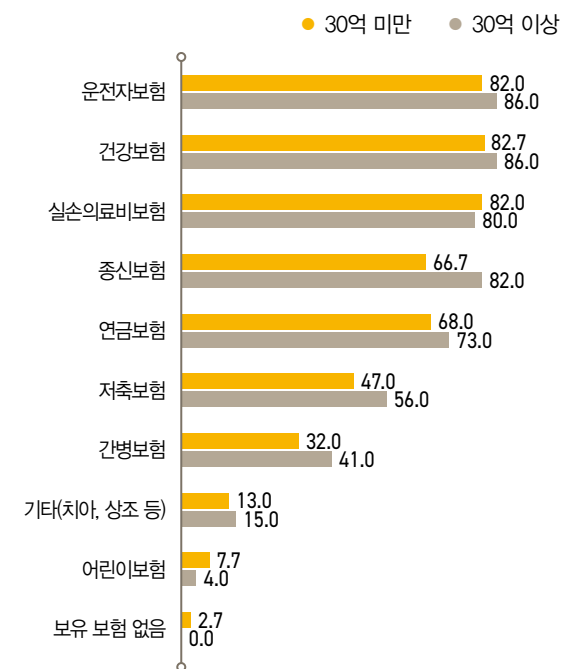


주) 전체 n=323, 30억미만 n=235, 30억이상 n=88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종신보험과 저축성보험 보유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간병보험과 저축성보험 보유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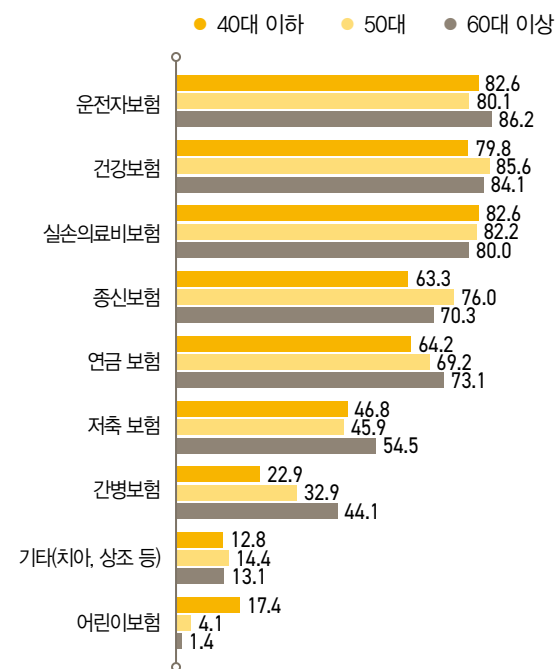
부자들은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보험상품 보유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금융자산 30억원미만에서 종신보험(변액보험 포함)과 간병보험(치매, LTC(장기간병)보험 등)의 보유 응답이 각각 66.7%, 32.0%인 반면, 30억원이상에서 종신보험과 간병보험의 보유 응답은 82.0%, 41.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30억원미만에서 연금보험(변액, 즉시/일시납, 세제적격/비적격 포함), 저축보험의 보유 응답이 각각 68.0%, 47.0%인 반면, 30억원이상에서는 73.0%, 56.0%로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험상품 보유는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간병보험의 경우 보유 중이라는 응답이 40대 이하에서 22.9%인 반면 50대에서 32.9%, 60대 이상에서 44.1%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유 비율이 높았다. 연금보험도 마찬가지로 40대 이하에서 64.2%, 50대에서 69.2%, 60대 이상에서 73.1%로 연령이 높을수록 보유 비율이 높다. 자산이 많을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데 보험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노후가 점점 현실로 다가올수록 노후대비 보험상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25 금융자산규모별 보유 보험상품 비교 (단위: %)



주1) 30억미만 n=300, 30억이상 n=100
주2) 복수응답

그림 26 부자의 연령별 보유 보험상품 보유율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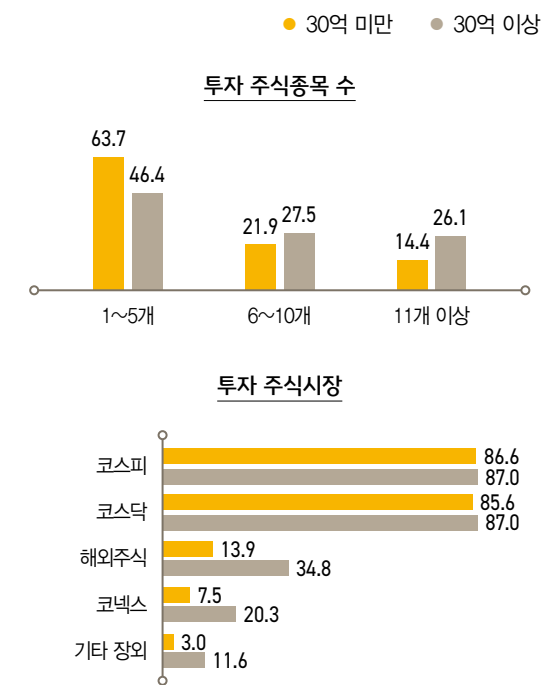


주1) 40대 이하 n=109, 50대 n=146, 60대 이상 n=145
주2) 복수응답

부자들은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해외 주식과 코넥스 시장 거래가 활발하고, 주식 투자시 연단위 장기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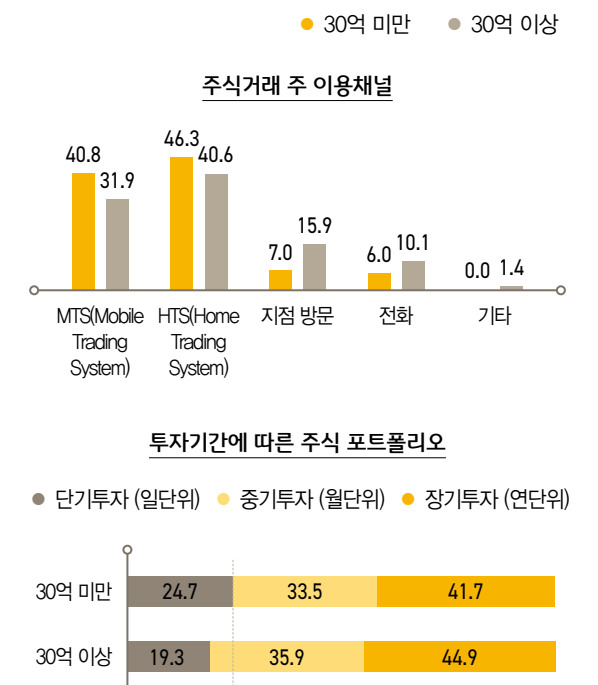
부자들은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투자하고 있는 주식 종목이 다양하고, 해외주식 및 코넥스 시장 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30억원미만 부자의 경우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6개 이상이라 응답한 비율이 36.3%인 반면 30억원이상 부자의 경우 53.6%가 6개 이상 투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투자 중인 주식시장의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에 투자하고 있다는 응답은 금융자산규모별 유사하나, 해외주식, 코넥스, 기타 장외 시장에서 투자하고 있다는 응답은 30억원미만 대비 30억원이상에서 각 시장 모두 2.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식거래 채널에서도 보유자산별 차이가 나타나는데, 30억원미만에서 지점방문 7.0%, 전화 주문이 6.0%인 반면 30억원이상에서는 지점방문 15.9%, 전화주문 10.1%로 각 채널 모두 2배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부자들은 전반적으로 주식 투자기간을 연단위 장기투자자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자산별 투자 기간의 경우 30억원미만에서 포트폴리오상 중·장기 투자 비중은 75.2%인 반면 30억원이상에서는 80.8%로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장기투자 성향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7 금융자산규모별 투자 주식 비교 (단위: %)



주1) 30억미만 n=201, 30억이상 n=69
주2) 투자 주식사장은 복수응답

그림 28 금융자산규모별 주식투자 성향 (단위: %)



주) 30억미만 n=201, 30억이상 n=69

CHAPTER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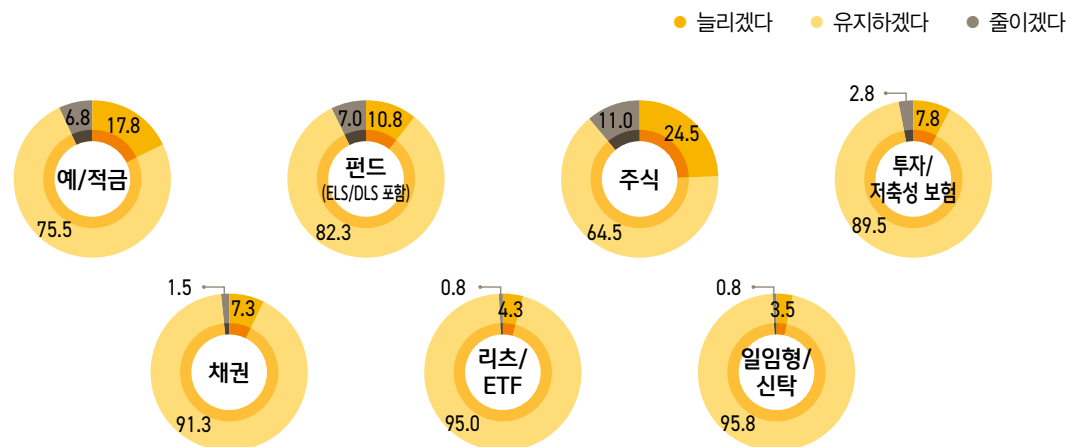
부자의 향후 투자 전략

부자들은 올해 금융상품 자산운용 방향에 대해 전년대비 투자 유지 계획 중, 그러나 ‘주식’에 대해서는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이 상대적으로 크다

부자들은 2020년에 금융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유지하겠다는 답변이 많았다. ‘주식’과 ‘예적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상품에서 80~90%대의 유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작년부터 이어진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저성장 기조 확대 등으로 부자들이 탐색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유지 계획에 비해서는 낮은 비중이지만 ‘주식’에 대해서 투자 확대 계획을 가진 경우가 24.5%, ‘예적금’이 17.8%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확대 계획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9 2020년 금융상품별 자산운용 방향

(단위: %)



주) 전체 n=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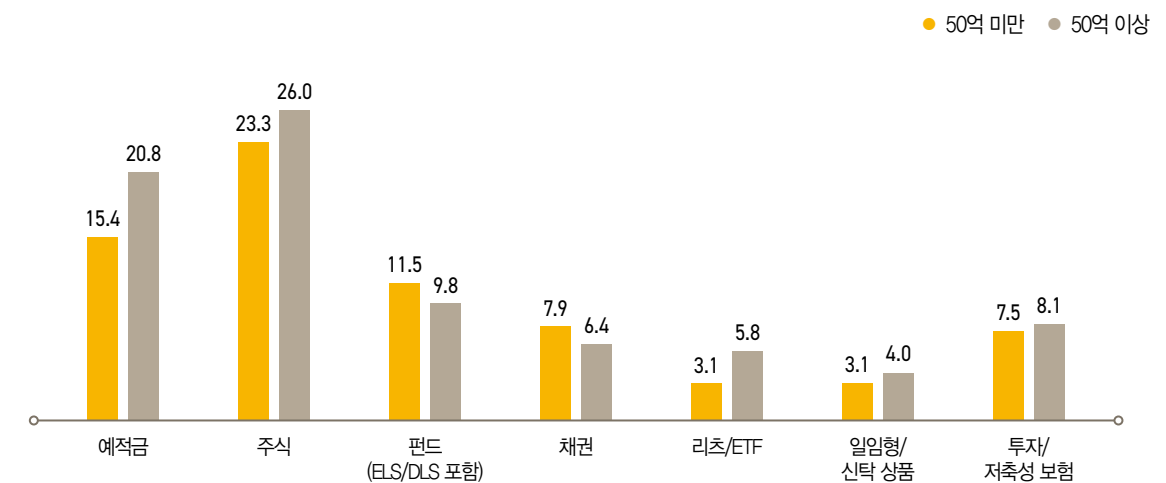
“주식”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진 경우는 부자들 중에서도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앞에서 부자들은 전반적으로 올해 투자를 확대하기보다는 유지하려는 계획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투자에 대해 탐색적인 계획을 가진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총자산규모별로 투자를 확대하려는 계획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총자산이 많은 50억원이상 부자들이 50억원미만 부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진 금융상품이 많았는데, 이는 투자 가능한 자산의 규모와 여력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는 ELS나 DLS가 포함된 ‘펀드’와 ‘채권’에 대해서는 50억원미만 부자에 비해 투자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진 경우가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주식’이나 ‘예적금’, 연금, 변액, 변액유니버설 등의 ‘투자/저축성 보험’, ‘리츠/ETF’, ‘일임형/신탁 상품’에 대해서는 투자를 늘리려는 계획을 가진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의 경우 ‘주식’에 23.3%, ‘예적금’에 15.4%가 투자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가 ‘주식’에 26.0%, ‘예적금’에 20.8% 계획을 잡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자산이 많을수록 금융자산 투자에 더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0 총자산규모별 금융상품 투자확대 계획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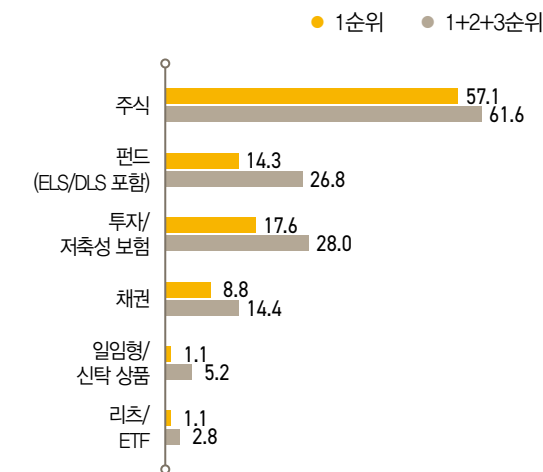
주) 50억원미만 n=227, 50억원이상 n=173

부자들은 장기적으로 수익이 예상되는 유망한 금융투자처로 ‘주식’을 꼽고 있다

부자들이 꼽은 장기적으로 수익이 기대되는 유망한 금융투자처로 ‘주식’을 선택하며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유망 금융상품 투자처를 1순위만 선택한 경우 57.1%로 반수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2+3순위까지 복수로 선택한 경우도 6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연금, 변액, 변액유니버설 등의 ‘투자/저축성 보험’(1순위 17.6%, 1+2+3순위 28.0%), ELS나 DLS가 포함된 ‘펀드’(1순위 14.3%, 1+2+3순위 26.8%)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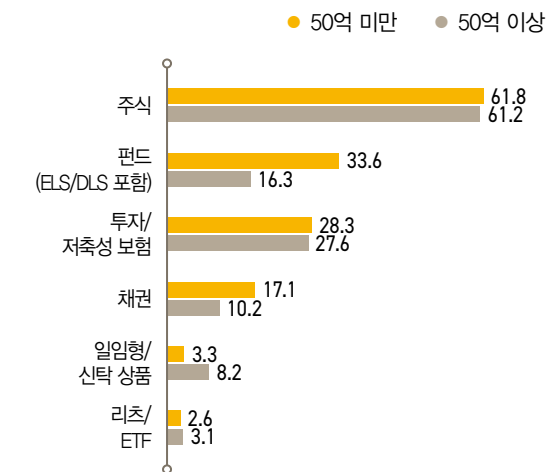
부자들 내에서도 총자산규모에 따라 유망 투자처에 대한 전망이 차이를 보였다. ‘주식’과 ‘투자/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총자산규모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펀드’와 ‘채권’에 대한 전망에는 차이를 보였다. 총자산 50억 원이상 부자는 ‘펀드’와 ‘채권’에 대해 장기 투자처로 꼽은 경우가 50억원미만 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반면 ‘일임형/신탁 상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는 투자 가능한 자금의 규모, 직접투자에 대한 선호 등에서 발생하는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 장기적으로 유망한 금융자산 투자처 (단위: %)



주) 전체 n=400

그림 32 총자산규모별 유망 금융자산 투자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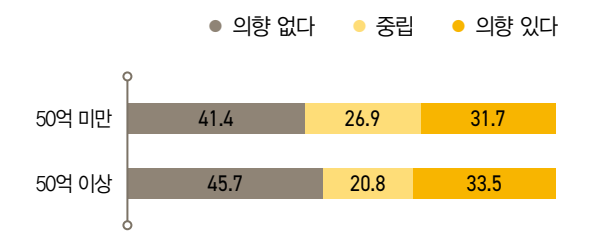


주) 50억원미만 n=227, 50억원이상 n=173

부자들은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해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다

한국 부자들은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해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는 해외 투자에 31.7% 긍정, 41.4%가 부정,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는 33.5% 긍정, 45.7%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영향으로 인한 탈세계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해외자산에 대한 부자들의 평가가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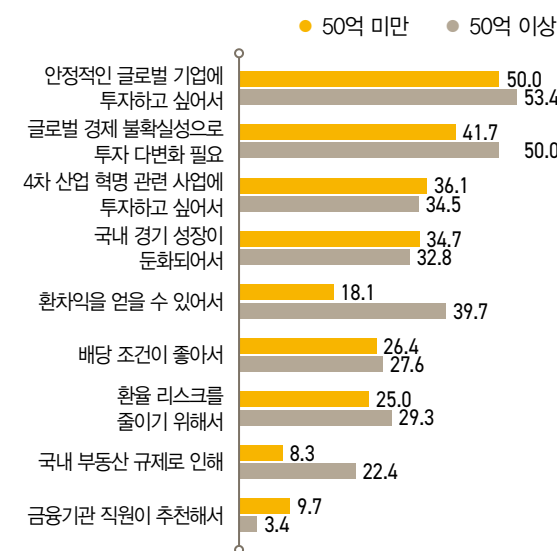
그림 33 총자산규모별 해외 투자 의향 (단위: %)



주) 전체 n=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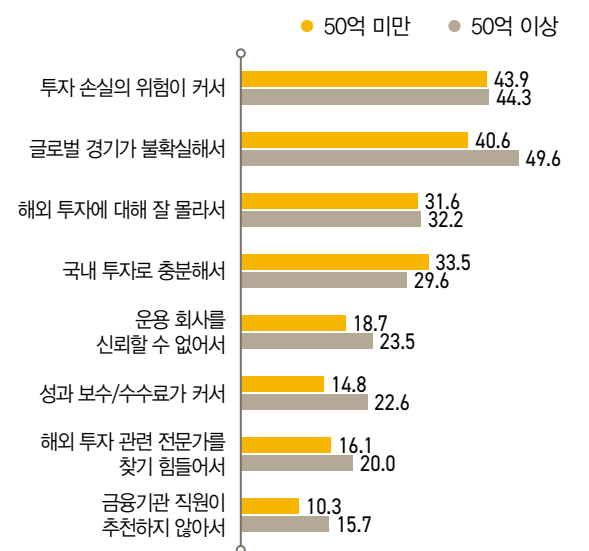
부자들이 꼽은 해외자산 투자목적은 ‘안정적인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서’(51.5%),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투자 다변화가 필요해서’(45.4%) 순이었고, 총자산 50억원이상의 경우 ‘환차익을 얻을 수 있어서’의 응답이 39.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해외자산 투자 기피 이유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44.4%), ‘투자손실 위험이 커서’(44.1%) 순이었다. 특히 총자산 50억원이상의 경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해외투자 필요와 기피 비율이 유사했는데, 이는 고자산가들의 글로벌 경기와 해외자산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판단된다.

그림 34 해외자산 투자 이유 (단위: %)



주1) 50억미만 n=72, 50억이상 n=58
주2) 외화자산 투자 긍정 응답자, 복수응답

그림 35 해외자산 투자를 기피하는 이유 (단위: %)



주1) 50억미만 n=155, 50억이상 n=115
주2) 외화자산 투자 중립, 부정 응답자, 복수응답

PART



부(富)의 생애

01 | 부(富)의 원천

02 | 부(富)의 성장 동력

03 | 부(富)의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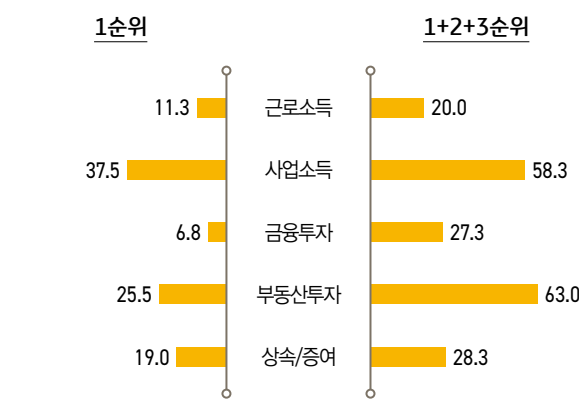
CHAPTER 01

부(富)의 원천

부자들은 현재 부를 이룰 수 있었던 주된 원천으로 노동을 근간으로 한 ‘사업소득’과 자산을 불러 나가는 ‘부동산투자’를 손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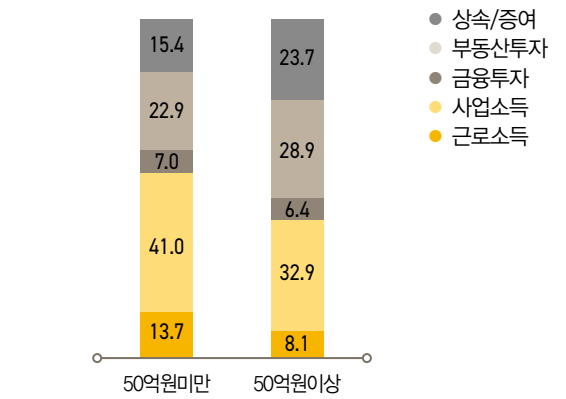
부자가 현재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주요 원천은 노동에 의한 ‘사업소득’에 이어 자산증식을 위한 ‘부동산투자’를 꼽았다(1순위). 총자산규모별로 응답은 차이를 보이는데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는 현재 부를 이루는 데 있어서 50억원미만 부자에 비해 ‘부동산투자’(28.9%)나 ‘상속/증여’(23.7%)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했다. 현재 자산을 축적하는데 기여한 주된 방법을 2개 선택할 경우 ‘부동산투자’가 63.0%로 가장 많고, ‘사업소득’이 58.3%로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근로소득’과 ‘금융투자’, ‘상속/증여’에 의한 자산 증대는 앞의 두 요인에 비해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36 현재 자산형성의 원천 (단위: %)



주) n=400

그림 37 총자산규모별 자산형성원천 (단위: %)



주) 총자산 50억원미만 n=227, 50억원이상 n=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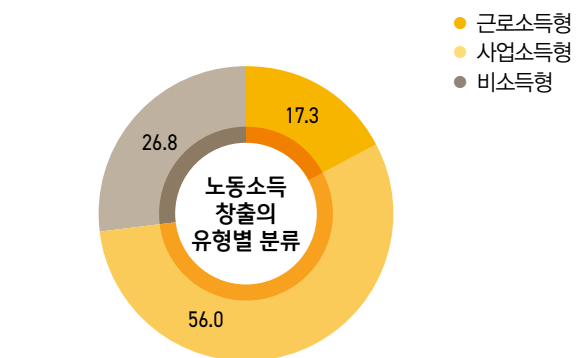
부자는 부의 원천에 따라 소득활동유형(사업소득/근로소득/비소득)과 투자활동유형(부동산투자/금융투자/상속증여)으로 나눌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부자들은 소득과 투자에 의한 원천을 모두 가지고 있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현재의 부를 형성하고 있다. 부자의 자산형성 원천을 토대로 크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의한 ‘소득활동에 의한 자산 증대 유형(이하 ‘소득활동유형’)과 부동산투자나 금융투자와 같이 소득활동이 아닌 ‘투자나 상속/증여에 의한 자산 증대 유형(이하 ‘투자활동유형)’의 두 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소득활동에 따라 부자들을 나눠보면, 사업소득이 부의 주요 원천이 된 ▲‘사업소득형’, 근로소득이 부의 주요 원천이 된 ▲‘근로소득형’, 부의 주요 원천이 사업이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아닌 ▲‘비소득형’의 3개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였다. 다음으로 소득활동이 아닌 투자활동 유형에 따라 부자들을 나눠보면, 부동산자산에 대한 투자가 부의 주요 원천이 된 ▲‘부동산투자형’,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 부의 주요 원천이 된 ▲‘금융투자형’,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이전자산이 부의 주요 원천이 된 ▲‘상속증여형’의 3개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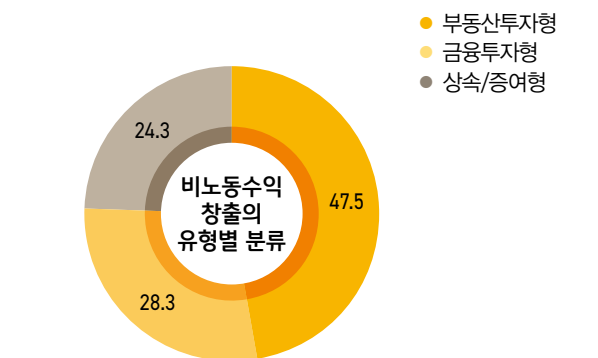
소득활동유형별 부자의 분포를 보면, 사업소득이 현재 부 형성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응답한 ‘사업소득형’ 부자가 56.0%를, ‘근로소득형’ 부자가 17.3%를 차지하여, 부자가 되는 원천으로 근로소득보다는 사업소득이 더 효과적임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투자활동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부동산투자가 현재 부를 형성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응답한 ‘부동산투자형’ 부자가 전체 부자의 47.5%로 가장 많았고, ‘금융투자형’ 부자는 28.3%, ‘상속/증여형’ 부자는 24.3%로 부자들 대부분이 부동산자산을 원천으로 부자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38 소득활동에 따른 유형과 비중 (단위: %)



주) n=400

그림 39 투자활동에 따른 유형과 비중 (단위: %)



주) n=400

CHAPTER 02

부(富)의 성장 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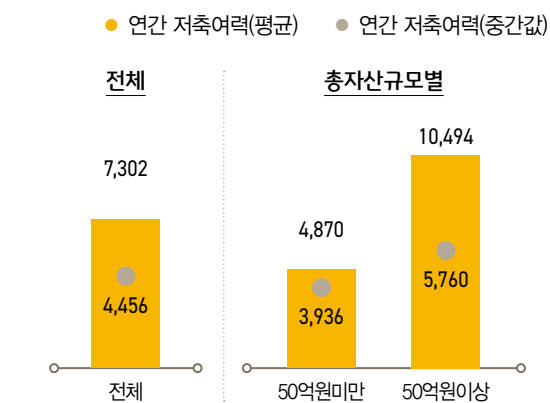
부자가구가 부를 늘릴 수 있는 첫번째 성장 동력인 연간저축여력은 평균 7천 3백만원이다

부자가 부를 늘릴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첫번째는 저축 여력의 정도¹이다. 부자가구의 연간 저축여력은 평균 7,300만원으로 월 600만원 이상을 저축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저축여력은 부채의 원금이나 이자상환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축이나 투자에 투입되는 금액은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부채는 미래의 저축을 당겨서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채 원금이나 이자상환에 사용되는 금액도 일종의 저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연간 평균 7,300만원의 저축여력은 총자산규모별로

간극이 커,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가구의 연간저축여력이 4,870만원인 수준에 비해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가구의 연간저축여력은 1억 494만원으로 2.2배 가량 높았다.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가구의 소비지출규모가 50억원미만 부자가구의 소비지출규모에 비해 1.3배 정도 크에도 불구하고, 투자수익으로 발생하는 재산소득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저축여력에 차이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0 총자산규모별 부자가구의 연간저축여력 (단위: 만원)



주) 전체 n=400, 총자산 50억원미만 n=227, 50억원이상 n=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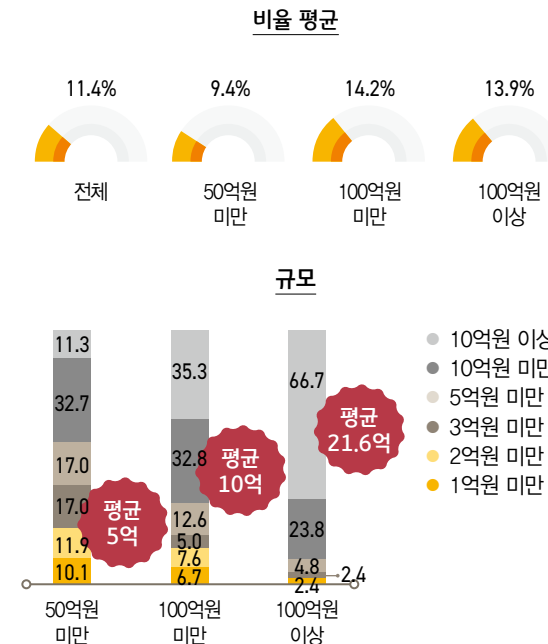
¹ 부자가구의 총소득에서 생활비의 소비지출과 세금 및 3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를 제외하여 저축여력 규모를 산출

부자가구가 부를 늘릴 수 있는 두번째 동력은 부채를 활용하는 것으로, 총자산의 규모에 맞춰 적극적으로 부채를 활용하고 있다

부자가 부를 늘리는 동력의 두번째는 부채의 활용이다. 부자들은 투자자산을 획득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총자산의 11.4% 정도의 부채를 활용하고 있다. 총자산규모별 총자산 대비 총부채(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 포함) 비율의 평균은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에서 9.4%, 50~100억원미만에서 14.2%로, 100억원이상에서 13.9%로, 총자산이 많을수록 비율이 증가하다가 100억원이상부터는 비율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다. 이는 부자들은 부채를 운용할 때 보유한 총자산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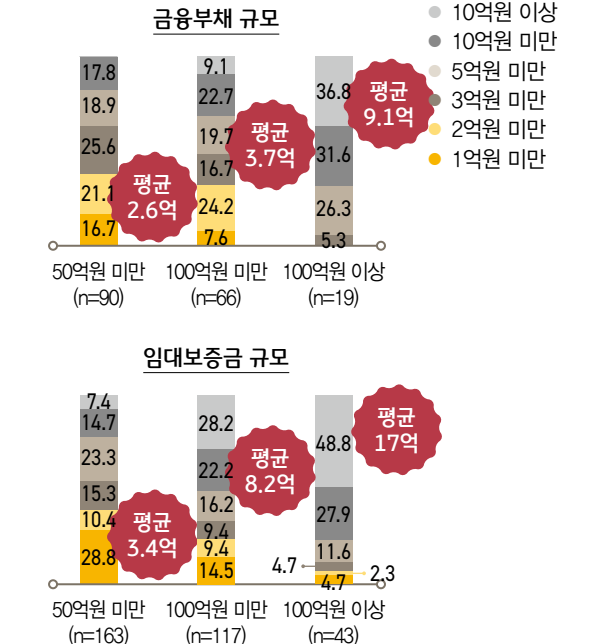
또한 부채의 종류별 규모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 금융상품보다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규모별로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의 임대보증금의 평균은 3.4억원으로 금융부채 잔액 평균인 2.6억원보다 많았고, 50억원이상 부자의 경우 금융부채 잔액의 두 배 정도의 임대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금융자산규모별 주식투자 성향 (단위: %)



주) 총자산 50억원미만 n=159, 100억원미만 n=119, 100억원 이상 n=42

그림 42 금융자산규모별 주식투자 성향 (단위: %)



주) 금융부채 보유 전체 n=175, 임대보증금 보유 n=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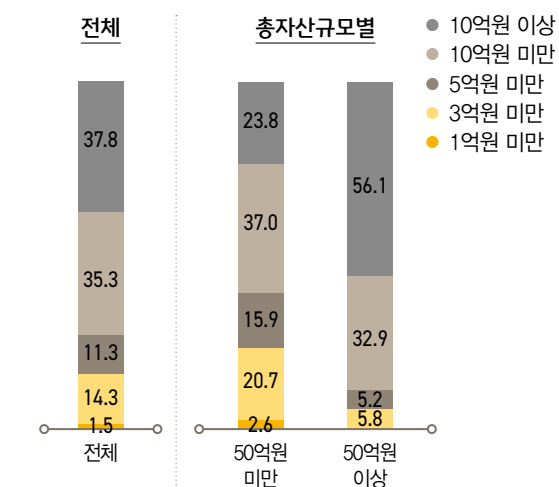
부를 늘릴 수 있는 세번째 동력은 종자돈으로 최소 5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고, 40대 전반에 이 돈을 마련한 경우가 많다

부자가 부를 늘릴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세번째 요소는 종자돈이다. 종자돈은 부자가 부를 늘리기 위한 초석으로, 이를 달성함으로써 이후 투자를 통한 소득이 본격적으로 일정 규모를 넘게 된다. 부자들이 생각하는 최소 규모의 종자돈은 평균 8억5천만원이고, 중간값으로는 5억원이었다. 종자돈 규모가 '5억원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 중 60.8%, 50억원이상 부자 중 88.0%로 나타났다.

총자산규모별로는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는 최소 종자돈으로 평균 6억 1천만원(중간값 5억원)은 있어야한다고 응답하였고, 50억원이상 부자는 평균 11억 8천만원(중간값 10억원)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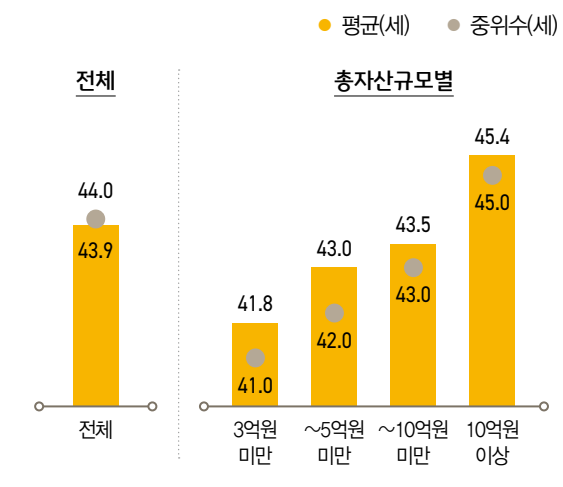
부자가 생각하는 최소 종자돈을 마련한 시기를 보면 55.8%가 '40대'에 달성²하였고, 평균 44세로 나타났다. 최소 종자돈의 규모에 따라 마련한 시기가 약간 차이가 있어 최소 종자돈을 '3억원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1세(중위수)에 마련하였고, '3억원~5억원미만'의 경우는 42세(중위수), '5억원~10억원미만' 43세(중위수), '10억원 이상' 45세(중위수)였다. 생각하는 최소 종자돈 규모가 클수록 이를 마련하는 시기가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41세~45세로 대부분 40대 전반대에 마련한 것으로 그리 편차가 크지는 않았다.

그림 43 종자돈 인식(전체, 총자산규모별) (단위: %)



주) 전체 n=400, 총자산 50억원미만 n=227, 50억원이상 n=173

그림 44 최소 종자돈을 마련한 나이 (단위: 세)



주) 전체 n=400, 3억원미만 n=63, ~5억원미만 n=45, ~10억원미만 n=141, 10억원이상 n=151

² 부자의 최소 종자돈 마련시기: 30~39세 23.8%, 40~49세 55.8%, 50세이상 20.5%(n=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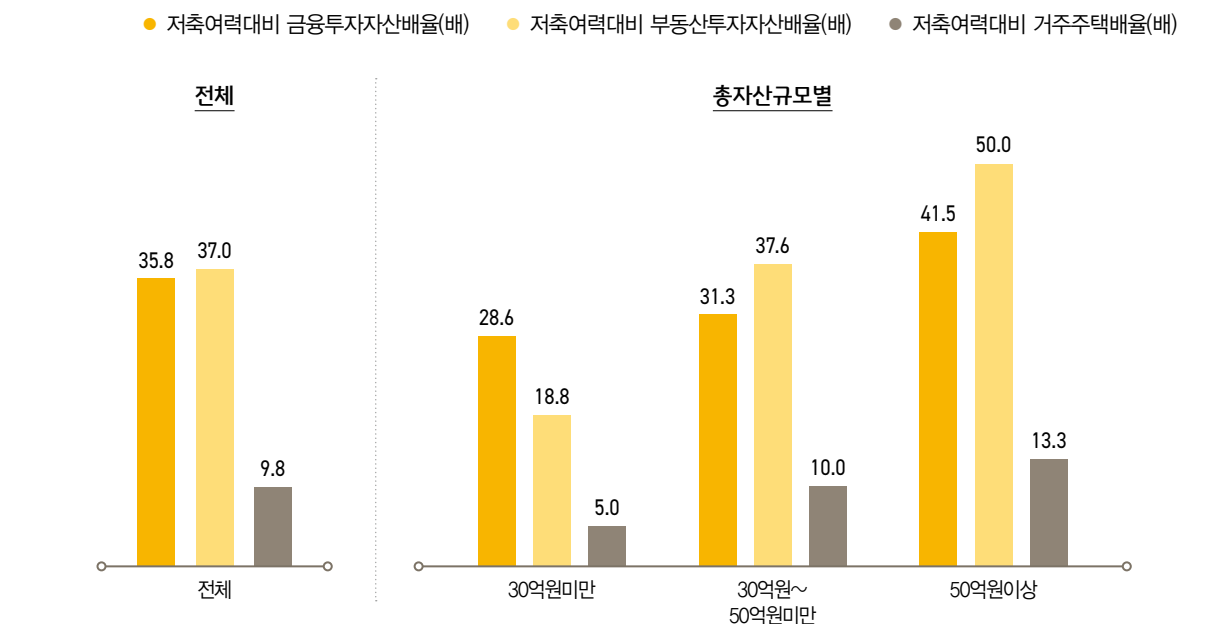
네번째 동력은 투자자산분배 전략으로, 자산이 축적될수록 부동산투자자산에서 금융투자자산 중심으로 분배가 늘어난다

부자가 부를 늘릴 수 있는 네번째 동력은 자산별 투자자산분배 전략이다. 부자들의 자산 형성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금융 및 부동산 투자자산이 저축여력 대비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총자산 30억원미만 부자들과 총자산 30억원~50억원미만 부자들의 경우, 저축여력 대비 금융투자자산의 배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 저축여력 대비 부동산투자자산의 배율은 총자산 30억원~50억원미만 부자에서 20가량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자들이 어느 정도 자산을 축적한 이후로는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 자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들은 총자산 30억원~50억원미만 부자들에 비해 저축여력대비 금융투자자산과 부동산 투자자산의 배율이 모두 10 이상 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부자들의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부동산투자자산 중심의 자산 분배에서 벗어나 금융투자자산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5 부자가구의 저축여력대비 투자자산 배율 (단위: 배)



주1) 기준저축여력 0이하 제외

주2) 전체 n=349, 총자산 30억원미만 n=64, 30억원~50억원미만 n=135, 50억원이상 n=150

CHAPTER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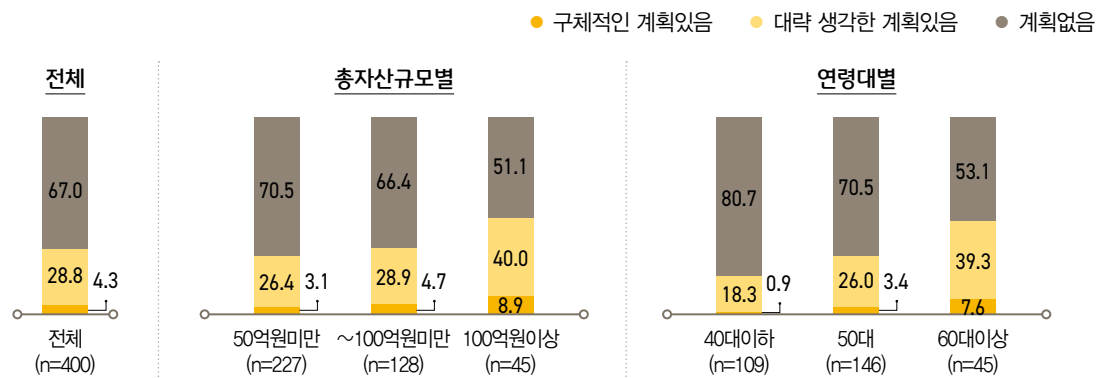
부(富)의 이전

현재 부자 중 33%는 자신의 부를 이전하려는 상속과 증여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부자들이 보유한 부를 이전하는 가장 주된 방법은 상속과 증여이다. 현재 부자들 중 33%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전하려는 증여나 상속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4.3%였고, ‘대략적으로 생각한 계획이 있는’ 경우는 28.8%였다.

총자산규모가 많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높다. 총자산 100억원이상 부자의 절반 정도는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8.9%로 평균이상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연령대로 보면 60대이상 부자들 중 46.9%가 구체적이거나 대략적인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여, 이 시기에 상속과 증여에 대해 본격적 고민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6 현재 자산이전을 위한 상속이나 증여 계획 보유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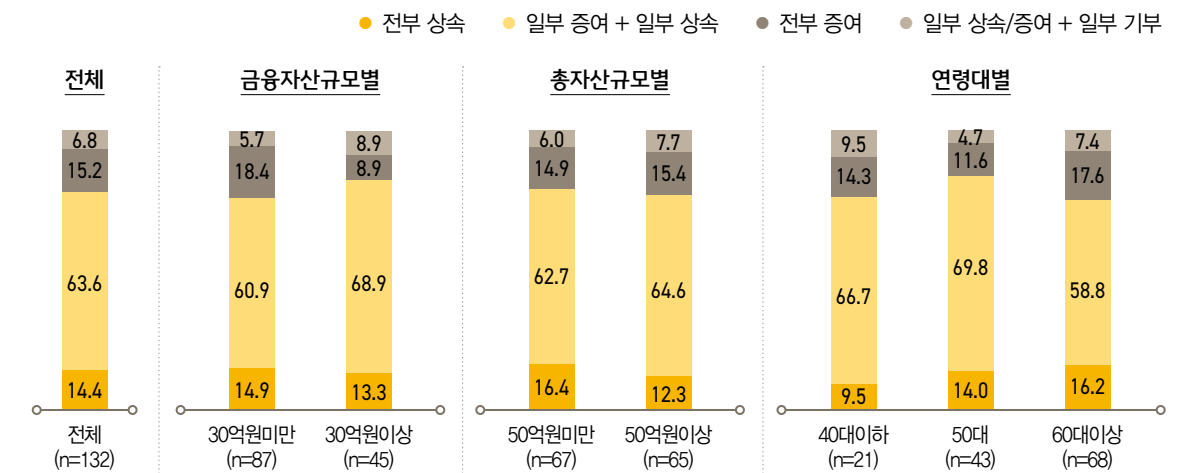
현재 보유 자산의 이전 계획이 있는 부자의 60% 정도가 일부 증여와 일부 상속을 병행하려고 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이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상속과 증여를 병행하여 활용하려고 한다. 부자들 중 63.6%가 ‘자산의 일부는 증여하고 일부는 상속하겠다’고 응답하였고, ‘자산의 전부를 증여할 것’이나 ‘자산의 전부를 상속할 것’이라는 경우는 각각 15.2%, 14.4%로 나타났다. ‘자산의 일부는 상속 또는 증여하고, 일부는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라는 일부 기부의 의사를 밝힌 경우는 6.8%에 불과하다.

자산규모에 따라서는 금융자산이 적은 30억원미만 부자의 경우 ‘자산의 전부를 증여하겠다’는 경우가 18.4%로 전체 증여에 대한 계획이 많았고, 총자산규모별로는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의 경우 ‘자산의 전부를 상속하겠다’는 경우가 16.4%로 전체 상속에 대한 계획이 많았다.

‘자산의 일부는 증여나 상속하고 일부를 기부하겠다’는 경우는 자산이 많거나 젊은 부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는데, 금융자산 30억원이상 부자가 8.9%,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가 7.7%, 40대이하 부자가 9.5%로 전체 6.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47 계획 중인 상속/증여 내용 (상속/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만) (단위: %)



주) 40대이하의 경우 n=30 미만으로 해석상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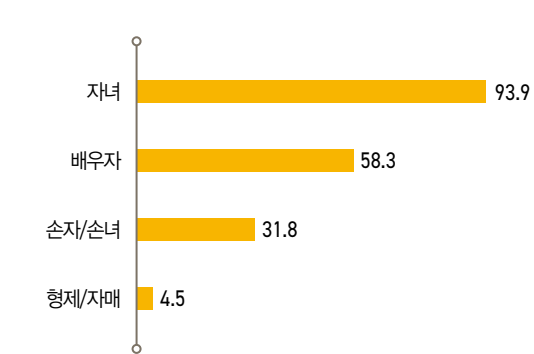
”

부자 자산을 상속·증여하려는 대상은 자녀, 배우자, 손자녀의 순으로, 자산이 많을수록 여러 명에게 나눠주려고 생각하고 있다

상속이나 증여를 하려는 부자들은 상속이나 증여의 대상으로 가족 중 ‘자녀’가 가장 많아 93.9%로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 ‘배우자’에게 주겠다는 경우가 58.3%, 손자/손녀 31.8%였고, ‘형제/자매’에게 주겠다는 경우는 4.5%로 매우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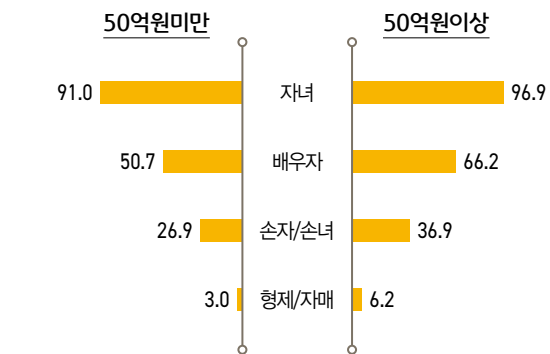
현재 보유한 자산이 많을수록 상속이나 증여의 대상으로 자녀, 배우자, 손자/손녀의 순으로 자산을 물려주려고 한다는 점은 같으나, 대상마다의 중복률이 높게 나타난다. 자산이 많을수록 물려줄 자산의 여력이 커데 이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보다는 여러 명에게 분산해서 넘겨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의 경우 ‘자녀’에게 주려는 경우가 91.0%, ‘배우자’ 50.7%, ‘손자/손녀’ 26.9%였으나, 50억원이상 부자의 경우 ‘자녀’에게 주려는 경우는 96.9%로 50억원미만 부자의 응답(91.0%)보다 5.9%p가 높고, ‘배우자’의 경우도 50억원이상 부자가 66.2%로 50억원미만 부자(50.7%)에 비해 15.5%p 높았다. ‘손자/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의 36.9%가 상속/증여의 대상으로 응답하고 있어 50억원미만 부자(26.9%)에 비해 10.0%p나 높게 나타났다.

그림 48 계획 중인 상속/증여 대상 (복수응답, 단위: %)



주) 상속/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만 n=132

그림 49 총자산 규모별 상속/증여 대상 (복수응답, 단위: %)



주) 상속/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만 50억원미만 n=67, 50억원이상 n=6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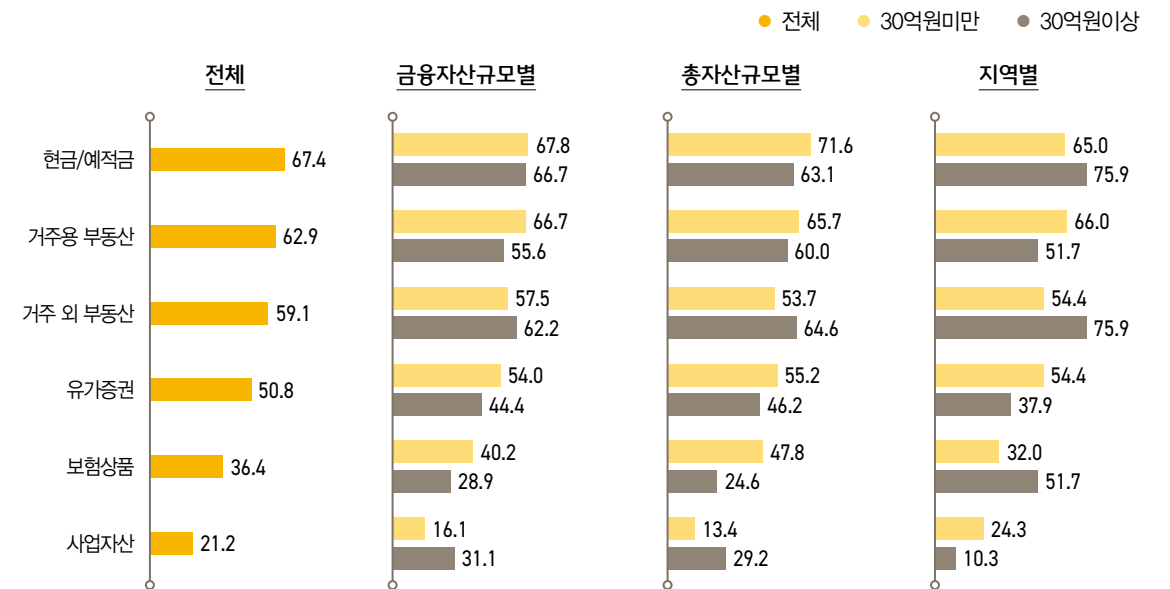
부자가 증여·상속하려는 자산은 현금, 거주/거주의 부동산, 유가증권 순, 자산이 많을수록 거주외 부동산이나 사업자산을 계획하고 있다

부자가 상속이나 증여로 물려주려는 자산은 ‘현금/예적금’이 67.4%로 가장 많고, ‘거주용 부동산’(62.9%), ‘거주외 부동산’(59.1%), 주식이나 펀드 등 ‘유가증권’(5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사망보험, 종신보험 등의 ‘보험상품’이 36.4%, ‘사업자산’ 21.2%였다.

증여나 상속하려는 자산의 유형은 금융자산 규모나 총자산 규모,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금이나 예적금’은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71.6%)나 지방에 거주하는 부자(75.9%)가 물려주려고 계획하는 경우가 많았고, ‘거주외 부동산’은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64.6%)나 지방에 사는 부자(75.9%)가 물려주려고 계획한 자산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보험상품’의 경우는 금융자산 30억원미만 부자(40.2%)나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47.8%), 지방에 거주하는 부자(51.7%)가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자산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산’의 경우는 금융자산 30억원이상 부자(31.1%),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29.2%),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는 부자(24.3%)에게서 물려줄 계획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50 계획 중인 상속/증여 자산 유형 (복수응답, 단위: %)



주) 상속/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만 전체 n=132, 금융자산 30억원미만 n=87, 30억원이상 n=45, 총자산 50억원미만 n=67, 50억원이상 n=65, 서울/수도권 n=103, 지방 n=29

PART

IV

[이슈] 코로나19에 따른 한국 부자의 소득과 자산 변화

01 |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영향

02 | 코로나19에 따른 자산 영향



CHAPTER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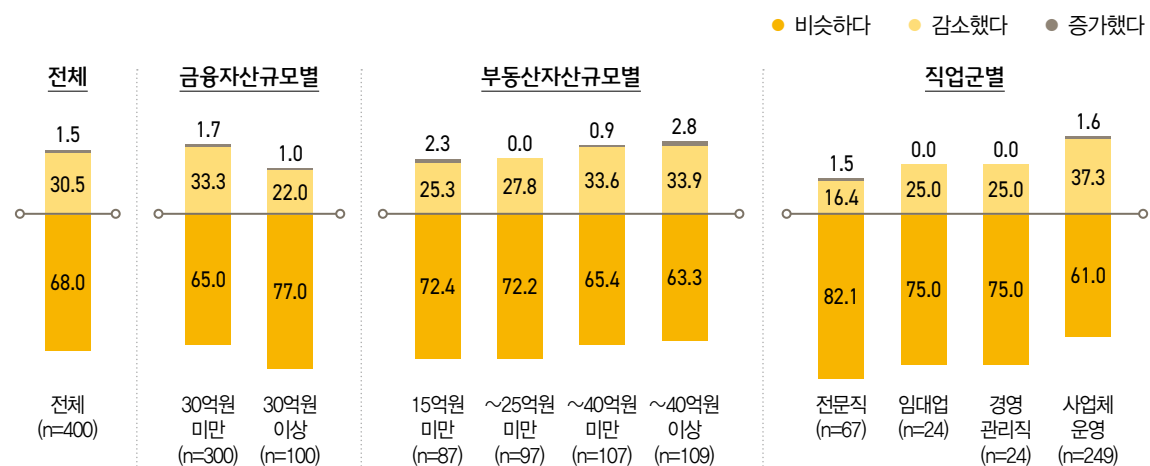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영향

부자의 30.5%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구 소득 감소를 경험하였고,
사업체 운영자의 경우 타 직업군 대비 소득 감소 경험이 더 많았다

코로나19로 인해 부자 중 30.5%는 월 가구소득이 감소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변화는 직업군 별로 차이가 있는데,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자의 경우 37.3%가 소득 감소를 경험하며 가장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직의 16.4%, 부동산임대업이나 경영관리직이 각각 25.0%가 소득 감소를 경험한데 비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이었다. 금융자산 규모별로는 금융자산 30억원미만 부자가 30억원이상 부자에 비해 소득 감소를 경험한 가구가 많았고, 부동산자산 규모별로는 부동산자산규모가 클수록 소득 감소를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그림 51 코로나19로 인한 월평균 가구소득 변화 여부

(단위: %)



주) 직업군 중 은퇴, 일반 사무직 등 n=10 이하의 소수 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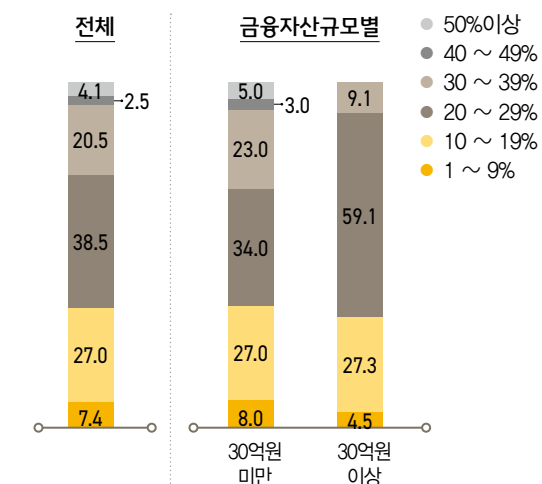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는 약 21% 정도로
소득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난 영역은 근로/사업소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를 경험한 부자 가구들은 평균적으로 월 소득이 21.3% 감소하였다. 금융자산 30억원 미만 부자는 평균 22.0%, 금융자산 30억원이상 부자는 평균 18.3%의 소득감소가 나타나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감소율이 낮았다.

월 가구소득 감소 정도를 구간별로 보면, 20%대의 감소가 38.5%로 가장 컸고, 10%대(27.0%), 30%대(20.5%) 등의 순이고, 40%이상 소득감소를 경험한 부자가구는 6.6%이다. 금융자산이 많은 30억원이상 부자는 20~29%의 감소율을 나타내는 경우가 59.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10%대가 27.3%, 30%대가 9.1%로 40%이상 소득감소가 나타난 경우는 없었다.

소득감소가 큰 부분은 '근로/사업소득'으로 94.3%가 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여 가장 영향이 큰 영역이기는 하였으나, '금융소득'에서의 감소가 44.3%, '부동산 임대소득'에서의 감소도 28.7%로 투자자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동산임대소득의 감소는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더 크게 영향을 받아, 30억원이상 부자 가구 중 45.5%가 부동산임대소득감소를 경험했는데, 이는 30억원미만의 25.0%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가 큰 부분이었다. 금융소득 감소는 금융자산 30억원미만 부자에게 상대적으로 영향이 더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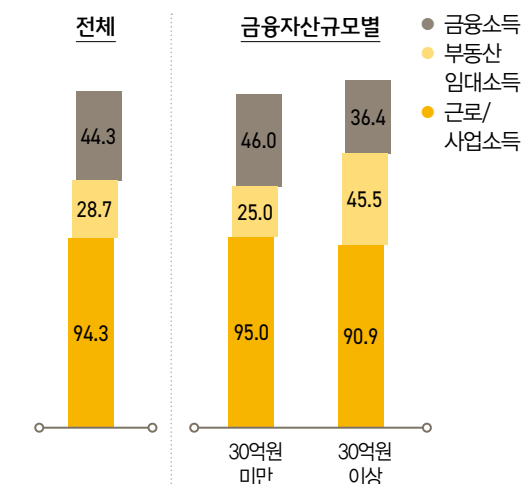
그림 52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한 소득감소 정도 (단위: %)



주1) 소득감소를 경험한 경우만

주2) 전체 n=122, 30억원미만 n=100, 30억원이상 n=22

그림 53 소득감소가 나타난 영역 (1+2순위, 단위: %)



주1) 소득감소를 경험한 경우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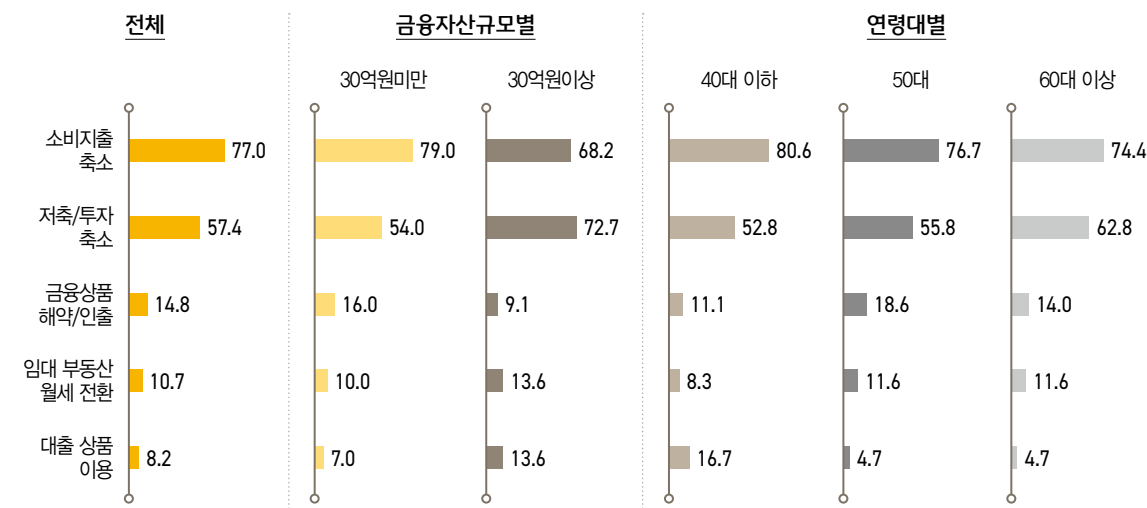
주2) 전체 n=122, 30억원미만 n=100, 30억원이상 n=22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부자들은 소비지출과 저축/투자를 모두 줄이며 대처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월 가구소득 감소를 경험한 부자들이 소득감소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보면 ‘소비지출을 줄인 경우’가 77.0%로 가장 많고, ‘저축이나 투자를 줄인 경우’가 57.4%로 뒤를 이었다. 금융자산규모별로는 가장 많이 사용한 대응방법에 차이가 있었는데, 30억원미만 부자는 ‘소비지출을 줄여서’ 소득감소에 대처하는 경우가 79.0%로 가장 많고 ‘저축이나 투자를 줄이는 경우’(54.0%)가 두번째로 많았으나, 30억원이상 부자의 경우는 ‘저축이나 투자를 줄인 경우’(72.7%)가 ‘소비지출을 줄이는 경우’(68.2%)보다 더 비중이 컸다.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소비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저축이나 투자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외 금융상품을 해약하거나 인출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30억원미만 부자가 30억원이상 부자에 비해 더 많았으나 ‘임대부동산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대출상품을 이용’하였다는 경우는 30억원이상 부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대출을 받는 경우는 금융자산이 많은 30억원이상 부자와 40대이하 부자의 경우가 많았다.

그림 54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한 대응 (1+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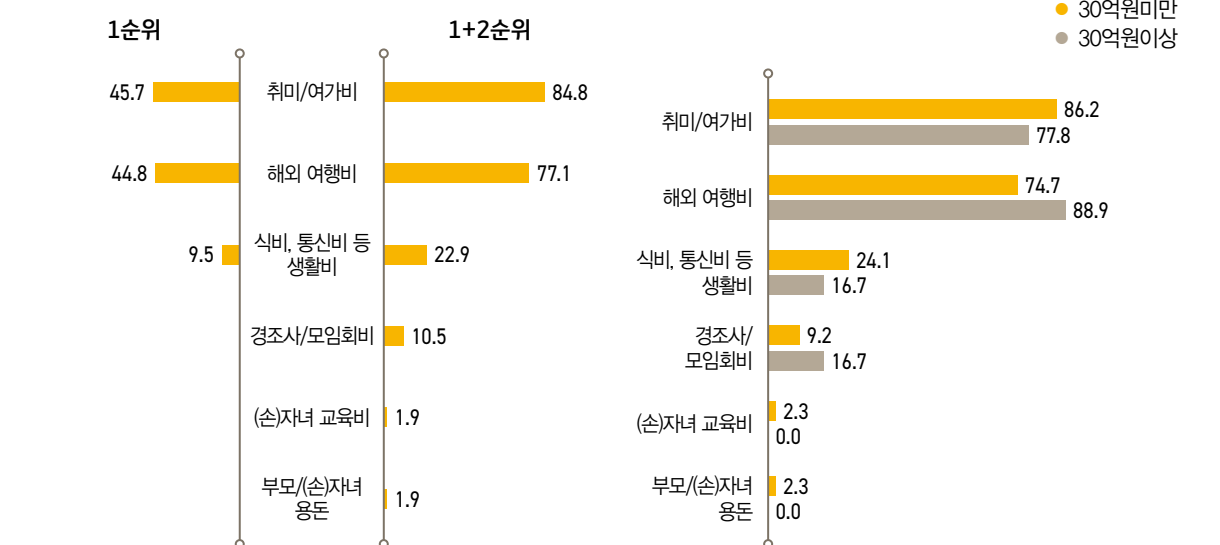
주) 부수입을 위한 경제 활동 등 기타 소수의견 상기 제외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부자들이 주로 줄인 소비지출 항목은 ‘취미나 여가비’, ‘해외여행비’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월 가구소득 감소를 경험한 부자들은 소비지출을 줄여서 만회하였다. 부자들이 소비지출을 줄인 항목은 주로 ‘취미나 여가비’와 ‘해외여행비’였다. 가장 주된 항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1순위만 보면 ‘취미/여가비’와 ‘해외 여행비’를 줄인 경우가 각각 45% 정도로 가장 많고, 남은 9.5%의 부자가 ‘생활비’를 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3가지 이외에 소비지출을 줄인 항목을 알아보기 위해 2순위까지 조사한 결과 ‘경조사/모임회비’, ‘(손)자녀 교육비’, ‘부모/(손)자녀 용돈’ 등을 줄인 경우도 있었다.(1+2순위)

금융자산규모별로 부자의 소비지출 감소 항목에 차이를 보이는데, 금융자산 30억원미만 부자는 취미/여가비를 줄인 경우가 86.2%로 가장 많고 ‘해외여행비’를 줄인 경우는 74.7%로 두번째로 많았다. 반면 금융자산 30억원 이상 부자는 ‘해외여행비’를 줄인 경우가 88.9%로 가장 많고 ‘취미/여가비’를 줄인 경우가 77.8%로 차이를 나타냈다. ‘식비, 통신비 등 생활비’에서는 30억원미만 부자들이 소비지출을 줄인 비중이 높으나, ‘경조사/모임회비’를 줄인 경우는 30억원이상 부자들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5 가구의 소비지출 감소 항목 (단위: %) 그림 56 금융자산규모별 소비지출 감소 항목 (1+2순위, 단위: %)



주1) 가구 소비지출을 감소한 경우만, n=105
주2) 온라인 쇼핑 비용 등 기타 소수 의견 제외

주) 금융자산 30억원미만 n=87, 30억원이상 n=18 (n=30 미만으로 해석시 주의)

CHAPTER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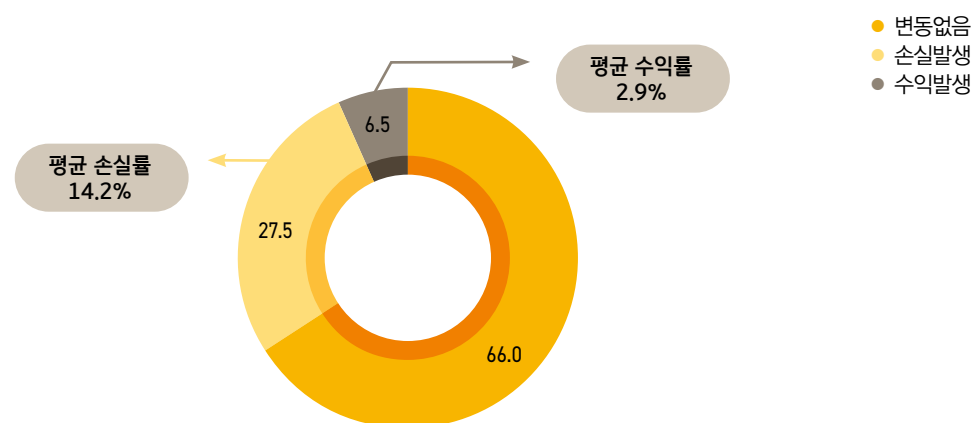
코로나19에 따른
자산 영향

코로나19로 27.5%의 부자가 종합 자산가치 하락을 경험하였으며,
단 6.5%만 종합 자산가치 상승을 경험하였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명 중 1명의 부자가 종합 자산가치 하락을 경험하였다. 손실을 경험한 부자들의 평균적인 손실률은 14.2%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 와중에도 6.5%의 부자들은 종합 자산가치가 상승하였는데, 이들의 평균 수익률은 2.9%로 손실률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2020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둔화가 전체적으로 자산가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그림 57 코로나19가 종합자산가치에 미친 영향

(단위: %)



주) n=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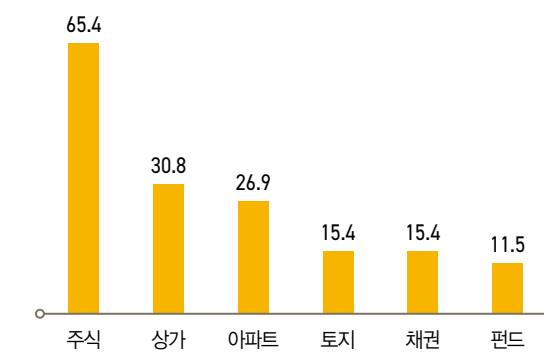
종합자산가치가 상승한 부자는 주로 주식, 상가, 아파트에서 수익을,
하락한 부자는 주로 주식과 펀드에서 손실을 보았다

종합자산가치 상승을 겪은 사람들은 주로 '주식', '상가', '아파트'에서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주 시장이 급변하는 가운데, 적절한 종목을 선택하여 투자함으로써 수익률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부동산 가격 상승세 영향으로 상가 및 아파트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합자산가치 하락을 겪은 부자들은 주로 '주식', '펀드'에서 손실을 경험하였다.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급락한 이후 재상승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변경을 하지 못하였거나, 큰 손실 직후 청산함으로써 손실 확정 등이 발생한 경우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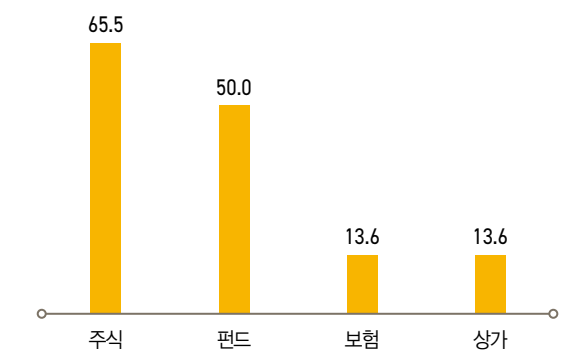
수익과 손실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자산이 모두 '주식'이라는 점에서, 주식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변동성이 큰 상품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회를 잡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8 수익 발생 자산 (단위: %)



주1) 종합자산가치 상승 부자, n=26, 10% 이상 응답 자산
주2) 복수응답

그림 59 손실 발생 자산 (단위: %)



주1) 종합자산가치 하락 부자, n=110, 10% 이상 응답 자산
주2) 복수응답

코로나19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점검 및 변경은 총자산이 많거나, 수익이 발생한 부자들이 더 많이 시행하였다

코로나19로 자산가치, 특히 주식과 펀드의 가치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부자들은 시장 상황에 맞추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거나 변경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자산이 많을수록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 30억원미만 부자들은 11.7%만 포트폴리오 점검 및 변경을 하였으나, 총자산50억원이상 부자들은 2배가 넘는 24.9%가 포트폴리오 점검 및 변경을 시행하였다.

한편, 총자산가치가 증가, 감소한 경우 중 누가 더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 변경에 나섰는지를 분석해 보았는데, 총자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포트폴리오 점검 및 변경에 나선 경우는 50%로, 중립 혹은 손실이 발생한 경우의 15~20%에 비해 두 배 이상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 변경을 시행한 것을 볼 수 있다.

실제 총자산이 증가한 비중은 총자산 30억원미만 3.9%, 50억원미만 6.0%, 50억원이상에서 8.1%로, 총자산이 많을수록 포트폴리오 점검이 좀 더 활발히 발생하면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가 좀 더 많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그 비율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아 위기 상황에서 수익을 보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림 60 총자산별 포트폴리오 점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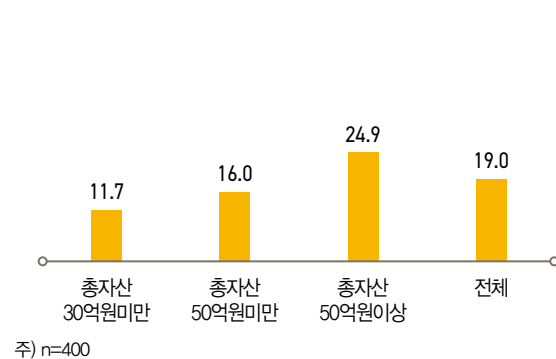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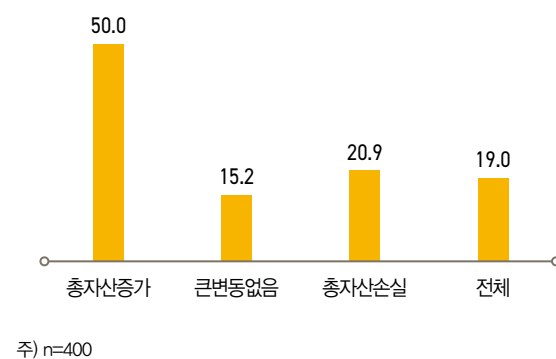


그림 61 수익/손실 경험별 포트폴리오 점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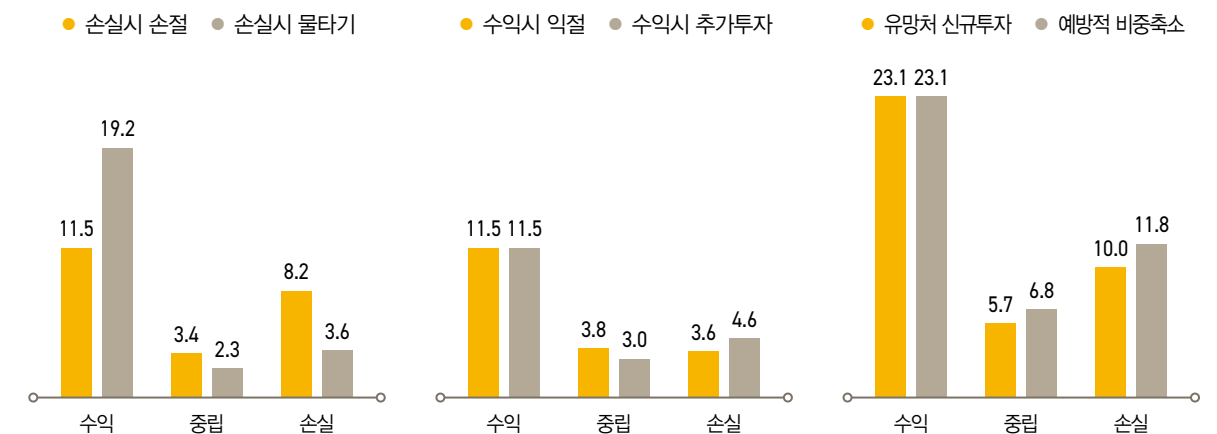
수익이 발생한 부자들은 익절, 손절 등 사후적 조치 외에도 선제적/예방적인 포트폴리오 조정 등에도 적극적이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종합자산가치 상승을 경험한 부자들은 중립이나 손실을 경험한 부자들에 비해 손실 발생상황, 수익 발생상황뿐만 아니라, 수익이나 손실 발생 이전에도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종합자산가치 상승을 경험한 부자들은 중립이나 손실을 경험한 부자들에 비해 손절이나 하락한 가격에 해당 자산 추가 매입(속칭 물타기)을 더 많이 실행하였다. 특히 손절에 비해 물타기를 두 배 가량 더 선호하였는데 이는 향후 자산가치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손실 규모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수익이 발생한 경우, 종합자산가치 상승을 경험한 부자들은 다른 부자들에 비해 3배 가량 더 많이 익절을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적인 투자도 적극적으로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합자산가치가 상승한 부자들은 다른 부자들에 비해 자산에서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도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 향후 유망한 투자처에 투자를 확대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투자를 회수하는 등 사전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을 더 많이 시행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림 62 종합자산가치 상승/하락별 포트폴리오 점검 행태 (단위: %)



참고1 설문조사 개요

본 보고서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주관으로 전문 시장조사기관을 통해 전국의 금융자산 10억원이상 고자산가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방법

| | | |
|---------|---|---|
| 조사 대상 | ▶ | • 금융자산 10억원이상을 보유한 개인 • 만20세이상 금융의사결정자 |
| 조사 방법 | ▶ | • 개별면접조사 (Face to face) |
| 조사 기간 | ▶ | • 2020년 7월 6일 ~ 8월 7일 |
| 표본 구성 | ▶ | • 총 400명 |
| 표본 추출방법 | ▶ | • 할당 표본추출(Quota Sampling) (수도권/비수도권, 자산규모별 Soft Quota) |

참고2 용어정의

● **총자산** = 금융자산 + 부동산자산 + 기타자산

● 금융자산 유형

- 유동성 자산: 현금, 수시입출금, MMF/MMT
- ETF(상장지수펀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
- ELS(주가연계증권): 특정 주식 또는 다수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에 따라 지급 이익이 결정되는 증권
- DLS(파생결합증권): 이자율, 통화(환율), 실물자산(금, 원유 등), 신용위험(기업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등)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만기 지급액이 결정되는 증권
- 랩어카운트(일임형상품):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로서 투자자가 맡긴 예비자산을 투자일임계약 체결 후 투자자의 투자성향, 투자경험, 자산규모 등을 감안해 운용하는 자산관리서비스
- 리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운용수익 및 매각수익을 배당 또는 잔여 재산분배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자산 유형

- 거주용 부동산: 주택,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 거주외 부동산: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아파트/오피스텔, 빌딩/상가, 토지/임야 등 부동산

● 기타자산: 예술품, 금, 보석, 회원권 등 자산의 현재 시가

● 부자 분류

- 자산가: 금융자산 1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개인
- 고자산가: 금융자산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개인
- 초고자산가: 금융자산 300억원이상 개인

● 금융 지식수준 분류

- 매우 낮은 수준: 투자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본 경험이 없는 정도
- 낮은 수준: 주식과 채권의 차이 정도만 구별할 수 있는 정도
- 높은 수준: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 매우 높은 수준: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 투자성향 분류

- 안정형: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안정추구형: 투자 원금의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 위험중립형: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 적극투자형: 투자 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 공격투자형: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적극 수용

발 행 인 윤종규
편 집 인 조경엽
발 행 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연 구 자 황원경(wk.hwang@kbfk.com), 박정미(park.jeongmi@kbfk.com), 김진성(jins.kim@kbfk.com),
권세환(pursue312@kbfk.com), 손광표(kp.son@kbfk.com)
발 행 일 2020년 10월 29일
조사기관 NICE디앤알 주식회사
편집인쇄 (주)나눔커뮤니케이션

본 저작물은 KB금융지주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의 승인 없이 본 책자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